

| 연차보고서 2026-03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26~2030)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ISBN 978-89-6338-808-3 (93320)



주재윤 · 안준홍 · 손현섭 · 신승희 · 박성민 · 윤이상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26~2030)

주재윤·안준홍·손현섭·신승희·박성민·윤이상

머 리 말

1988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최근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181만 명의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고 노령연금 급여의 수급자도 약 649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그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도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458조 원(시가 기준)이다.

이러한 막대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민연금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본 과제는 2027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목적 이외에도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본 연구원의 주재운 부연구위원이 책임자로 수급자 및 급여지출 전망, 중기 추계모형 보완을 수행하였고, 가입자 및 보험료 수입 전망은 박성민 초빙 연구위원과 신승희 연구위원이 수행하였으며, 기금전망은 손현섭 부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또한, 거시경제변수 전망은 안준홍 부연구위원이 수행하였고, 중기추계모형 보완 보조 등은 윤이상 과장이 맡았다.

국민연금 중기전망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중기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모형에 적용되는 변수들의 불확실성으로 전망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확한 추계결과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연금제도의 지속적 변화에 맞춰 추계모형에 적용하는 방법에서도 실적자료의 미비로 예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 방법론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형에 적용되는 초기치와 기초율 등을 최근의 추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의한 중기재정전망은 관련된 가정 및 변수의 오차,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제도의 변화 등에

의하여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추계에 의한 미래의 예측 방법이 갖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많은 자문을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공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이를 연구한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특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추후 결정될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26년 6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한 정 립

목 차 | Contents

요 약	1
I. 서 론	7
II. 중기 거시경제 전망	9
III. 가입자 전망	13
1. 가입자 현황	13
2. 가입자 전망	18
IV.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27
1. 연금보험료 수입 현황	27
2.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29
V. 급여 지출 및 기타 지출 전망	49
1. 급여 지출 현황	49
2. 급여 지출 전망	54
3. 급여 종류별 지출 및 기타 지출 전망	66
VI. 기금운용현황 및 기금 전망	89
1. 기금운용현황	89
2. 기금 전망	94
참고문헌	99
부 록	101

표차례

〈요약표 1〉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2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3
〈요약표 3〉 보험료 수입 전망	4
〈요약표 4〉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	5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6
〈표 II-1〉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12
〈표 III-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2025.12)	13
〈표 III-2〉 월별 가입자 현황(2024.12~2025.12)	14
〈표 III-3〉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20
〈표 III-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21
〈표 III-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23
〈표 IV-1〉 연금보험료 징수 현황(2025.12)	27
〈표 IV-2〉 연금보험료 수입 현황(2010~2025)	28
〈표 IV-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현황(2010~2025)	30
〈표 IV-4〉 상·하한 소득자 비중(2010~2025)	32
〈표 IV-5〉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현황(2010~2025)	34
〈표 IV-6〉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5
〈표 IV-7〉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전망	35
〈표 IV-8〉 임의(임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현황(2010~2025)	38
〈표 IV-9〉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39
〈표 IV-10〉 연금보험료 징수통계(2023~2025)	41
〈표 IV-11〉 기금수입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의 재구성(2023~2025)	42
〈표 IV-12〉 가입종별 징수율 산출(2023~2025)	43
〈표 IV-1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46
〈표 IV-14〉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6

〈표 IV-15〉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IV-16〉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IV-17〉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7
〈표 IV-18〉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48
〈표 V-1〉 급여 지급현황(2010~2025)	51
〈표 V-2〉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현황	52
〈표 V-3〉 급여액 비교	53
〈표 V-4〉 수급자 수 비교	53
〈표 V-5〉 A값 전망	55
〈표 V-6〉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	57
〈표 V-7〉 출생코호트(63~67년생) 인구 수 및 가입자 수	60
〈표 V-8〉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2010~2025)	67
〈표 V-9〉 특례노령연금 전망	67
〈표 V-10〉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2010~2025)	68
〈표 V-11〉 조기노령연금 전망	69
〈표 V-12〉 노령연금(20년 미만) 지급현황(2010~2025)	70
〈표 V-13〉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2010~2025)	72
〈표 V-1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전망	76
〈표 V-15〉 노령연금(20년 미만) 전망	76
〈표 V-16〉 노령연금(20년 이상) 전망	77
〈표 V-17〉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77
〈표 V-18〉 유족연금 지급현황(2010~2025)	78
〈표 V-19〉 유족연금 전망	79
〈표 V-20〉 장애연금 지급현황(2010~2025)	80
〈표 V-21〉 장애연금 전망	81
〈표 V-22〉 장애일시금 전망	82
〈표 V-23〉 반환일시금 지급현황(2010~2025)	82
〈표 V-24〉 반환일시금 수급자 전망	84
〈표 V-25〉 반환일시금 급여액 전망	85
〈표 V-26〉 사망일시금 지급현황(2010~2025)	85

〈표 V-27〉 사망일시금 전망	86
〈표 V-28〉 노령연금 급여액 산출내역	86
〈표 V-29〉 유족연금 급여액 산출내역	87
〈표 V-30〉 장애연금 급여액 산출내역	87
〈표 V-31〉 기타 지출 현황(2010~2025)	88
〈표 V-32〉 기타 지출 전망	88
〈표 VI-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89
〈표 VI-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90
〈표 VI-3〉 연도별 수익률 현황	91
〈표 VI-4〉 2025년도 투자현황	93
〈표 VI-5〉 기금투자계획	94
〈표 VI-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95
〈표 VI-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96
〈표 VI-8〉 부문별 여유원금 회수 세부내역	97
〈표 VI-9〉 국민연금 재정전망	98
〈부록표 1〉 타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결과	101
〈부록표 2〉 타기관 물가상승률 전망 결과	101
〈부록표 3〉 타기관 이자율(국고채 3년물) 전망 결과	101
〈부록표 4〉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02
〈부록표 5〉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03
〈부록표 6〉 연도별 수익률 현황	104
〈부록표 7〉 급여액 비교	105
〈부록표 8〉 수급자 수 비교	106
〈부록표 9〉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비교	106
〈부록표 10〉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 - 시나리오1	107
〈부록표 11〉 국민연금 재정전망 - 시나리오1	108
〈부록표 12〉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 - 시나리오2	108
〈부록표 13〉 국민연금 재정전망 - 시나리오2	109
〈부록표 14〉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 - 시나리오3	110
〈부록표 15〉 국민연금 재정전망 - 시나리오3	111

그림차례

[그림 III-1] 총 가입자 실적 및 2025년도 전망과의 비교	15
[그림 III-2] 사업장가입자 실적 및 2025년도 전망과의 비교	16
[그림 III-3]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25년 전망과의 비교	18
[그림 III-4]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및 전망	20
[그림 III-5]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21
[그림 III-6] 총 가입자 실적 및 전망	24
[그림 III-7] 사업장가입자 실적 및 전망	24
[그림 III-8] 지역가입자 실적 및 전망	25
[그림 III-9] 임의가입자 실적 및 전망	25
[그림 III-10] 임의계속가입자 실적 및 전망	26
[그림 IV-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36
[그림 IV-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36
[그림 IV-3] 임의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39
[그림 IV-4]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40
[그림 IV-5]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 실적 및 전망	44
[그림 V-1]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54
[그림 V-2] 총 급여액 실적 및 전망	57
[그림 V-3] 노령연금 급여액 실적 및 전망	59
[그림 V-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실적 및 전망	60
[그림 V-5] 유족연금 급여액 실적 및 전망	61
[그림 V-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수 실적 및 전망	62
[그림 V-7] 장애연금 급여액 실적 및 전망	63
[그림 V-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 실적 및 전망	63
[그림 V-9]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별 수급자 수 실적	64
[그림 V-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 급여액 실적 및 전망	65

[그림 V-11] 소득활동을 하는 자(재직수급자) 비율	73
[그림 V-1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구간통합별 감액률	75
[그림 V-1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구간통합별 인원 비중	75

요 약

1.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 경제상승률

- 우리나라 경제는 2026년 1.8%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뒤 2027년 1.9%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후 성장 탄력이 점차 둔화되면서 2030년에는 1.6%를 기록하며 1%대 성장률에 진입
-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경로 자체가 하향 조정
-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 발생 시 언제든지 역성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하방 압력 존재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26년 2.1%를 지나, 2027년부터 2.4%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고물가가 예상
- 하지만, 한국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 범위 내에서 변동
-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완화되면서 물가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
- 여전히,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2026년 3월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의 상승 압박이 있음.

○ 임금상승률(전산업, 상용 및 비상용 근로자)

- 임금상승률(전체임금총액 증감률)은 여타 지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3%대 중후반 유지 예상
- 2026년은 3.7%로 2025년 대비 0.6%p 증가

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 대기업 중심의 실적 상승으로 인한 상용정액급여의 인상을 바탕으로 상용임금총액의 증가가 주로 반영
- 2027년 4.2%로 고점을 기록한 뒤 2030년 3.5% 수준으로 완만하게 조정될 전망

○ 시장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 3년물, AA-)

- 2026년 3.4%에서 시작하여 2030년 3.9%까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는 우상향 곡선을 예상
-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프리미엄과 국가 채무 부담 등에 따른 시중 금리의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존재

〈요약표 1〉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경제성장률	1.0	1.8	1.9	1.5	1.4	1.6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1	2.4	2.4	2.3	2.4
임금상승률(전산업)**	3.1	3.7	4.2	3.7	3.5	3.5
회사채유통수익률*	3.7	3.4	3.6	3.8	3.9	3.9

주: 1) *는 수준변수(율), 나머지 변수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 1인 이상 사업장 전산업 기준 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전체임금총액)

3) 2025년은 실적치, 2026년 이후부터 전망치

출처: 실적치(한국은행(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회사채유통수익률), 고용노동부(임금상승률)), 전망치(저자 시산)

2. 가입자 전망

- 총 가입자 수는 2025년 말 2,181만 명에서 2026년 말 2,140만 명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 2030년 말에는 2,05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망
- 총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큰 등락을 겪었으며 2021년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회복함.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자 수 역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최근의 증감 추이를 반영함.
 - 최근의 임의가입자 급증은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 2026년부터 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 전 연금보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추납 신청이 2025년 중 급격히 증가하였음. 추납 신청을 위해서는 가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임의가입자 수가 빠르게

〈요약표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단위: 명, 연도 말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가입자	21,814,633 (-0.77%)	21,404,940 (-1.88%)	21,194,515 (-0.98%)	21,005,369 (-0.89%)	20,761,543 (-1.16%)	20,506,422 (-1.23%)
사업장 가입자	14,615,523 (-0.41%)	14,461,410 (-1.05%)	14,344,944 (-0.81%)	14,210,280 (-0.94%)	14,060,419 (-1.05%)	13,912,632 (-1.05%)
지역 가입자	6,410,507 (-1.58%)	6,130,673 (-4.37%)	6,012,309 (-1.93%)	5,888,637 (-2.06%)	5,761,120 (-2.17%)	5,637,068 (-2.15%)
임의	333,717 (5.63%)	366,975 (9.97%)	383,537 (4.51%)	394,568 (2.88%)	400,090 (1.40%)	405,605 (1.38%)
임의 계속	454,886 (-5.08%)	445,882 (-1.98%)	453,725 (1.76%)	511,884 (12.82%)	539,914 (5.48%)	551,117 (2.07%)

주: ()은 연간 증감률임. 2025년도 값은 실적임.

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임의가입의 특성상 이러한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임의계속가입자는 2028년에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에는 증가세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6년 68.6조 원, 2027년 73.5조 원에서 2030년 91.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연금보험료를 인상해 기인. 다만, 2027년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수 감소의 영향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요약표 3〉 보험료 수입 전망

(단위: 억 원)

연도	총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반·추납
2026	686,211	598,188	60,846	4,829	8,696	13,652
2027	734,504 (7.04%)	646,936 (8.15%)	58,355 (-4.10%)	5,295 (9.66%)	9,305 (7.00%)	14,612 (7.04%)
2028	793,593 (8.04%)	699,729 (8.16%)	61,512 (5.41%)	5,719 (8.00%)	10,845 (16.55%)	15,788 (8.04%)
2029	854,265 (7.65%)	753,890 (7.74%)	64,464 (4.80%)	6,140 (7.36%)	12,776 (17.80%)	16,995 (7.65%)
2030	915,922 (7.22%)	809,594 (7.39%)	67,368 (4.51%)	6,494 (5.77%)	14,245 (11.50%)	18,222 (7.22%)

주: ()은 연간 증감률이며, 2026년의 증감률은 2025년 정확한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실적자료의 부재로 가입종별 연간 증감률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4. 급여 지출 및 기타 지출 전망

- 베이비붐 세대 코호트는 인구 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 보유자 및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의 비중도 높으며, 이후 세대의 수급 유입도 본격화됨에 따라 수급연령 상향이 적용되는 2028년을 제외하면 전망기간 동안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16.11.30. 시행된 개정법으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연금 신규수급자는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망기간 동안 비슷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유족연금 신규수급자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반환일시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급사유는 연령 도달이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요약표 4〉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

(단위: 건, 억 원)

연도		총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	장애 일시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2026	수급자	8,276,090	6,815,055	1,173,841	75,812	2,476	190,265	18,641
	급여액	559,753	493,624	46,236	4,565	507	13,649	1,172
2027	수급자	8,812,938	7,290,377	1,220,869	79,036	2,550	201,809	18,297
	급여액	627,175	556,059	49,899	4,897	523	14,579	1,218
2028	수급자	9,000,912	7,415,517	1,283,154	81,713	2,568	200,246	17,714
	급여액	680,413	604,417	53,969	5,235	532	15,022	1,238
2029	수급자	9,527,626	7,882,520	1,347,044	84,205	2,563	194,341	16,953
	급여액	738,003	657,074	58,276	5,556	537	15,314	1,246
2030	수급자	10,059,631	8,353,459	1,412,446	86,489	2,552	188,580	16,105
	급여액	816,629	730,503	62,825	5,853	543	15,658	1,247

주: 1)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2) 연금은 1개월 이상 수급한 연간 수급자 수이며, 일시금은 연간 총 수급자임.

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¹⁾. 연령 도달로 인한 수급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 코호트 유입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하나, 수급연령 상향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함.

5.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25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약 1,458조 원(시가 기준)에서 2026년 말에는 적립기금이 약 1,53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약 1,6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7년도 운용자금은 회수되는 여유원금 63조 원과 신규조성자금 약 80조 원을 합하여 약 1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요약표 5〉 국민연금 재정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입 (A)	계	1,328,946	1,437,390	1,563,678	1,700,642	1,835,510
	연금보험료	686,211	734,504	793,593	854,265	915,922
	투자수익	642,735	702,886	770,085	846,377	919,588
지출 (B)	계	568,403	636,056	689,531	747,364	826,242
	연금급여	559,753	627,175	680,413	738,003	816,629
	기타	8,650	8,881	9,118	9,361	9,613
신규조성자금 (C=A-B)		760,543	801,334	874,147	953,278	1,009,268
여유원금 회수(D)		640,490	631,982	553,317	555,315	536,699
운용자금(E=C+D)		1,401,033	1,433,316	1,427,464	1,508,593	1,545,967
적립기금		15,340,506	16,141,839	17,015,987	17,969,265	18,978,534

주: 1) 기타 지출은 관리운영비 및 경상지출 등이 포함됨.

2) 재정전망 작성기준은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는 관계없는 발생주의로 기록하였으며, 따라서 현금의 유출입과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1) 국민연금법 부칙 개정(2012년)

I. 서론

매년 수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 특히 연금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의 전망을 통하여 여유자금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하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인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는 중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수행되는 재정계산을 위한 장기재정전망과 다른 형태를 갖는다. 즉, 장기재정전망은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재정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매 연단위의 현금의 흐름을 그 기본 결과로 제시하는 반면, 중기재정전망은 보다 세부적인 제도의 반영을 위하여 월단위로 작성되며, 재정상태의 안정성 진단보다는 정확한 수입과 지출의 전망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기재정전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중기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중기추계모형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단위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상태나 소득의 변화를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²⁾. 가입자 전망은 최근 가입자의 증감 추이, 연금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생산활동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 전망, 경제활동인구 전망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매월 가입자의 소득이 변화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연금보험료 수입을 전망하고, 거시경제 변수의 전망에서는 경기순환주기 등을 고려함으로써 장기전망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상황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2) 이러한 월(月) 단위의 구분은 연(年) 단위로 구축된 장기전망과 구분되며, 월별로 변화되는 가입자의 변화, 즉,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매년 7월에 변화되고 수급자의 급여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나, '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는 등 제도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은 최근 연월의 실적자료를 초기치로 사용하여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산출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 이어서 2028년에 이루어질 수급연령 상향³⁾을 고려하는 등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망하였으며, 변동이 불규칙하여 예측이 쉽지 않은 일시금의 경우에는 최근의 변화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기금운용수익 및 회수자금 규모의 파악을 위하여 중기전망 시점에서 이미 투자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원리금 추심계획⁴⁾에 나타난 수익금과 회수계획을 반영하고 향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기자산배분계획에 의거한 투자계획을 반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중기전망에서 최근의 경향과 변화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중기전망의 전망치와 실적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전망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2장에서는 중기전망에 적용될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를 다루고 있으며, 3장에서는 가입자 전망, 4장에서는 연금보험료 수입의 산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5장에서는 급여 지출 및 사업비를 포함한 기타 지출의 전망, 6장에서는 기금운용수익 및 회수자금의 산출과정과 전망된 수입과 지출을 이용하여 적립기금 등 전반적인 재정전망 결과와 설명을 게재하였다.

3)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63세, 2028년도부터 64세로 상향 조정됨.

4) 원리금 추심계획은 기 투자된 운용자금에 대하여 회수와 이자의 현금흐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중기전망에 사용되는 원리금 추심계획은 현금주의로 작성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II. 중기 거시경제 전망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을 5년 단위로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는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의 전망 결과가 외생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그리고 회사채유통수익률(AA-)은 국민연금제도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주요한 거시경제변수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하는 변수이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5년 단위의 거시경제변수의 전망 결과가 반영된다는 의미는 거시경제변수 또한 5년 단위의 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재정전망을 위해, 거시경제변수(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산업 임금상승률(전체임금총액), 이자율(회사채이자율))에 관한 중기전망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구조 유지가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상승과 결합하여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망 결과를 변수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성장률(전년 동기대비 GDP 증가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 한국경제는 1% 수준의 저성장에 머물렀으나, 2026년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민간소비 개선, 재정 및 통화정책 완화 효과를 바탕으로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 1.9%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후 성장 탄력이 점차 둔화되면서 2030년에는 1.6%를 기록하며 1%대 성장률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체로 부합하며, 경기 하방

1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위험이 완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률 상향은 구조적 성장잠재력의 회복이라기보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호조와 정책 효과, 기저효과에 기인한 부분적 정상화의 성격이 강하다. 건설투자 부진,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 소비 회복의 제약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성장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7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1% 중반대 성장률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경로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 발생 시 언제든지 역성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하방 압력 또한 존재한다.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의 이례적인 고물가 시기를 지나 전망기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7년에 다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 2.1%를 지나, 2027년부터 2.4%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고물가가 예상되나, 한국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실측치 대비 물가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은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완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소비심리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요가 물가를 견인할 만큼 강하게 확대되는 국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물가 상승은 주로 환율 및 국제유가 등의 비용 측면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에 따른 비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요인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2026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상승률(전체임금총액 증감률)은 여타 지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3%대 중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은 3.7%로 2025년 대비 0.6%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실적 상승으로 인한 상용정액급여의 인상을 바탕으로 상용임금총액의 증가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4.2%로 고점을 기록한 뒤 2030년 3.5% 수준으로 완만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2%대)를 상회하는 이러한 임금 상승 흐름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 실측치에서 나타난 높은 변동성이 전망에도 반영되어 있어,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변성은 향후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회사채(AA-) 유통수익률은 단기적인 금리 하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3.4%에서 시작하여 2030년 3.9%까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다만,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프리미엄과 국가 채무 부담 등에 따른 시중 금리의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보다는 중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전망 후반부로 갈수록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것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보상 요구가 반영된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저성장-(상대적) 고물가-중금리’가 결합된 새로운 균형 상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30년으로 갈수록 1%대로 하락하는 GDP 성장률 추세는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며, 경제 주체들은 3% 후반대 수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시적인 경영 환경으로 전제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중등 정세의 불안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하방 압력은

1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1〉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경제성장률	1.0	1.8	1.9	1.5	1.4	1.6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1	2.4	2.4	2.3	2.4
임금상승률(전산업)**	3.1	3.7	4.2	3.7	3.5	3.5
회사채유통수익률*	3.7	3.4	3.6	3.8	3.9	3.9

주: 1) *는 수준변수(율), 나머지 변수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 1인 이상 사업장 전산업 기준 월평균 명목임금상승률(전체임금총액)

3) 2025년은 실적치, 2026년 이후부터 전망치

출처: 실적치(한국은행(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회사채유통수익률), 고용노동부(임금상승률)), 전망치(저자 시산)

Ⅲ. 가입자 전망

1.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대상이며 가입자의 종류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의가입자는 법정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도달로 의무가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하거나, 이미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급여 수준 제고를 위해 64세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다.

2025년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81만 명이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가 1,462만 명(67.0%), 지역가입자가 641만 명(29.4%), 임의가입자(1.5%)가 33만 명, 임의계속가입자가 45만 명(2.1%)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전체 가입자 중 남성이 1,178만 명(54.0%)으로 여성 1,003만 명(46.0%)보다 다소 많다. 가입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표 Ⅲ-1〉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2025.12)

(단위: 명)

구분 성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21,814,633	100.0	14,615,523	6,410,507	333,717	454,886
남자	11,784,124	54.0	8,275,127	3,302,680	65,604	140,713
여자	10,030,509	46.0	6,340,396	3,107,827	268,113	314,173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1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남성 828만 명, 여성 634만 명으로 남성 비중이 높은 반면, 지역가입자는 남성 330만 명, 여성 311만 명으로 성별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들이 수급 요건 충족 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월별 가입자 현황(2024.12~2025.12)

(단위: 천 명)

연도	월	가입자			전월대비증감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평균		20,951	14,640	6,310	-14	-5	-9
2024	12	21,189	14,676	6,513	211	-65	277
2025	1	21,100	14,594	6,505	-89	-81	-8
2025	2	21,031	14,598	6,433	-68	4	-72
2025	3	20,979	14,579	6,400	-52	-19	-33
2025	4	21,004	14,646	6,359	26	67	-42
2025	5	20,991	14,665	6,326	-14	19	-33
2025	6	20,942	14,659	6,283	-48	-5	-43
2025	7	20,920	14,663	6,257	-22	4	-26
2025	8	20,900	14,676	6,224	-20	13	-33
2025	9	20,859	14,657	6,202	-41	-19	-22
2025	10	20,835	14,672	6,163	-24	15	-38
2025	11	20,820	14,660	6,161	-15	-12	-3
2025	12	21,026	14,616	6,411	206	-44	250

주: 1) 평균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자료로 산출함.

2) 계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합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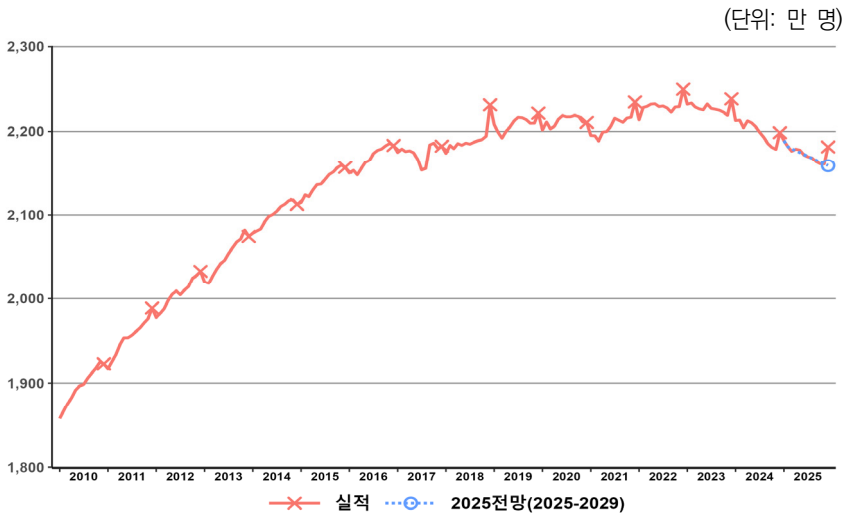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25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합계는 2,103만 명으로, 전년 동기(2024년 12월) 대비 16만 명 감소하였다. 이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전년 동기(2023년 12월) 대비 감소폭인 34만 명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다만, 연도 말 시점의 가입자 규모만으로 증감 추이를 판단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도 말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감소하는 반면 지역가입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증가 폭이 사업장가입자의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익년도 초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다시 증가하고 지역가입자가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따라서 계절적 변동 패턴을 고려하여 연간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 가입자 수는 2010년 1,923만 명에서 201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017년 일시적인 정체를 보인 후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자 수 역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Ⅲ-1] 총 가입자 실적 및 2025년도 전망과의 비교



주: '2025전망'은 중기재정전망(2025~2029)의 결과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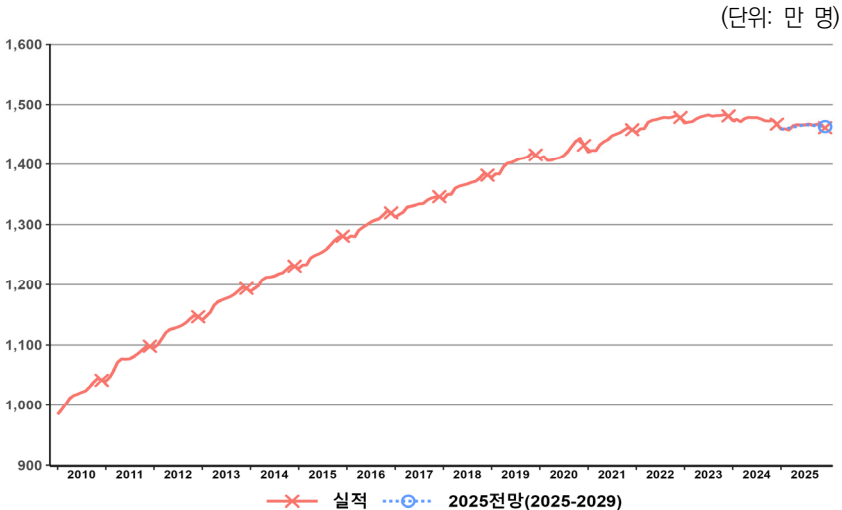
5) 이하 '2025전망'은 2025년도에 수행된 중기재정전망(2025~2029)의 결과임.

1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한편, 매년 연말·연초에 전월 대비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계절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1년 이내 단기 근로계약이 관행화된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말 계약 종료 시점에 사업장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이들 중 일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가 연초 재계약을 통해 다시 사업장가입자로 복귀하는 구조가 때문이다.

사업장가입자 수는 2010년 1,041만 명에서 2023년 1,481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취업자 수 확대 및 사업장가입자 범위 적용 확대⁶⁾ 등 경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적용 범위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23년을 전후하여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림 Ⅲ-2] 사업장가입자 실적 및 2025년도 전망과의 비교



6) 2003년 7월 1일 이후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6년 1월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5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사업장가입자 규모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실제 실적은 해당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망 당시 사업장가입자의 급격한 감소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가정이 실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 수는 2010년 867만 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며 2025년 641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 이후 사업장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지역가입자의 상당 부분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데 주로 기인한다.

세부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2014년까지 약 850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7년 중반에는 750만 명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감소 추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8년 말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 가입 조치로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다시 이전의 감소 추이를 나타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사업장가입자 이탈에 따른 지역가입자 유입으로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났으나, 하반기 들어 사업장가입자가 회복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양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일부는 임의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2020년의 급격한 변동에서 벗어나 이전의 감소 추세에 근접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연도 말에 지역가입자가 급증하였다가 연초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반복적인 패턴은 단기 근로계약 종료 및 재계약과 맞물린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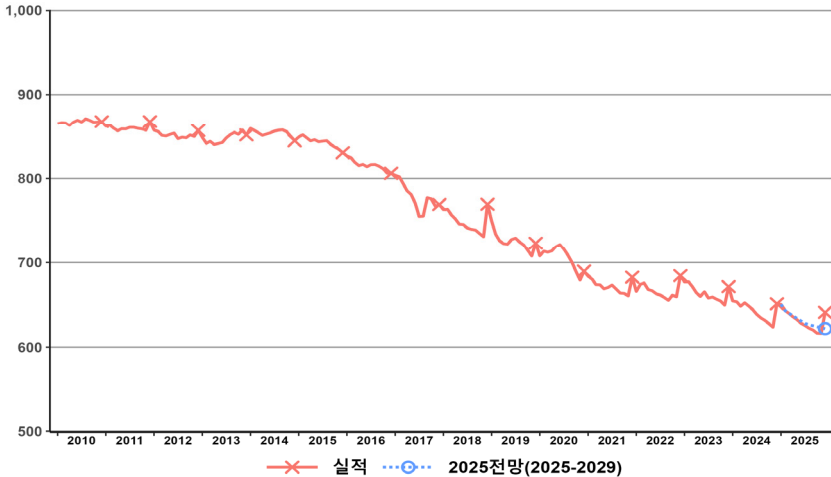
지난 2025년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4년까지 관측된 지역가입자의 감소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반적인 실적은 전망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연도 말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급증 현상이 전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시점을 전후하여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일정한

1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Ⅲ-3]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25년 전망과의 비교

(단위: 만 명)



2. 가입자 전망

가. 전망 가정 및 방법

국민연금 총 가입자⁷⁾는 경제활동인구에 국민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후 총 가입자에 지역가입자 비중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 수를 산출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총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국민연금가입자 = 인구×경제활동참가율×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가입자×지역가입자 비중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가입자-지역가입자

7) 여기서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즉 당연적용가입자를 의미하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음에서는 가입자 산출에 적용되는 주요 변수인 국민연금 가입률과 지역가입자 비중의 실적 및 전망치를 살펴보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의 전망 방법을 살펴본다.

1) 가입률

국민연금 가입률은 15세 이상 6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2010년 이후 가입률 추이는 [그림 III-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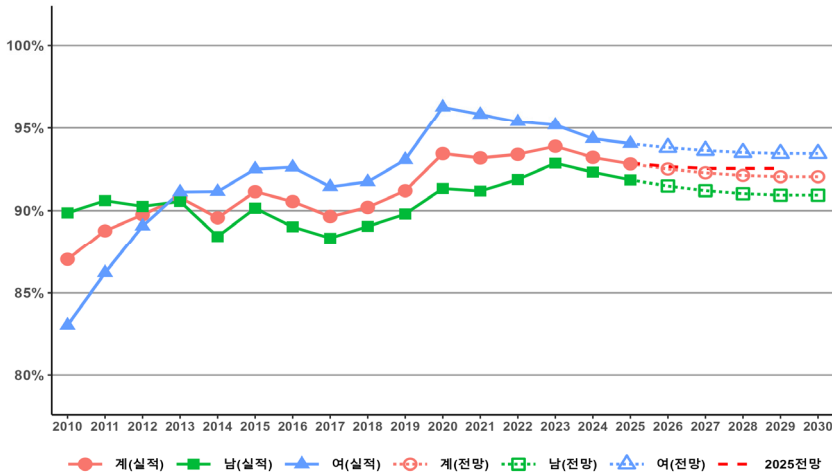
전체 가입률은 2010년 이전 약 80%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에 90%에 근접하였으며, 2023년에는 94% 수준까지 상승한 후 다시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가입률은 2010년 약 90% 수준에서 최근 93%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최근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여성 가입률이 남성 가입률을 상회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가입률의 상승은 주로 여성 가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입자 수 자체의 증가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남녀 모두 가입률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망 가정과 관련하여, 지난 2025년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4년의 가입률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 기존 하락률보다 완만한 속도로 하락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번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5년 가입률 감소율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폭을 완화하고, 2029년 이후에는 가입률이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그림 III-4]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및 전망



〈표 III-3〉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92.83%	92.51%	92.28%	92.13%	92.05%	92.05%
남	91.86%	91.49%	91.21%	91.03%	90.93%	90.93%
여	94.05%	93.81%	93.63%	93.51%	93.45%	93.45%

주: 1) 연평균 기준

2) 가입률 실적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60세 미만)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의 비율이며,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경제활동인구와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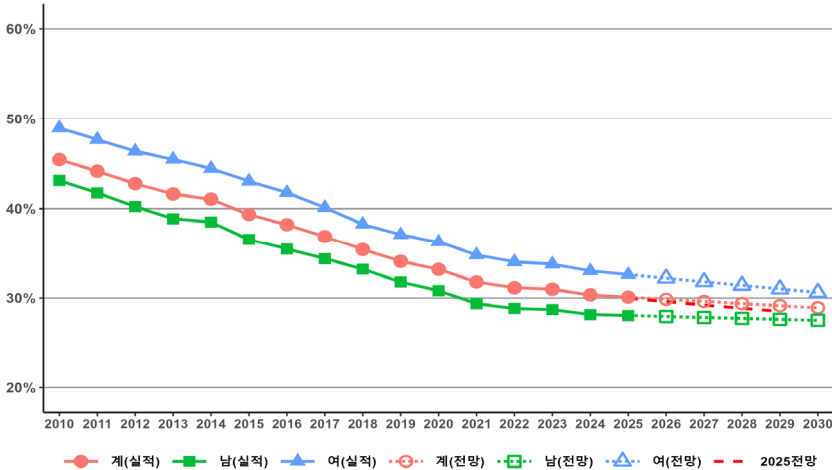
2) 지역가입자 비중

지역가입자 비중은 1999년 도시지역으로의 적용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70% 수준에 달하던 지역가입자 비중은 2025년 12월 기준 30.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2003년 사업장 적용 범위가 1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기존 지역가입자의 상당 부분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감소 속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반적인 하락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전망 가정과 관련하여, 지난 2025년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3년과

2024년의 지역가입자 비중 연간 감소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번 중기재정 전망에서는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의 연간 감소율을 적용하여 향후 지역가입자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그림 Ⅲ-5]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표 Ⅲ-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30.11%	29.87%	29.63%	29.40%	29.16%	28.93%
남	28.07%	27.96%	27.86%	27.75%	27.65%	27.54%
여	32.62%	32.21%	31.80%	31.40%	31.01%	30.62%

주: 1) 연평균 기준

2) 지역가입자 비중은 가입자(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대비 지역가입자의 비중임

3)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는 2013년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후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 중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후 정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임의가입자 급증은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 전 연금보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추납 신청이 2025년 중 급격히 증가하였다. 추납 신청을 위해서는 가입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임의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의가입의 특성상 이러한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⁸⁾.

이에 이번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월평균 변동 규모($\Delta 2,300$ 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향후 임의가입자 수를 전망하였다. 한편, 지난 2025년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4년 월별 감소 규모($\nabla 723$ 명, 2024년 1월~12월 평균)를 기준으로 하되, 임의가입자의 과도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감소 규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임의계속가입자 전망은 신규가입률, 계속가입률, 탈퇴율을 적용하되 최근의 변화 추이가 반영되도록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월 임의계속가입자에 계속가입률과 탈퇴율을 적용하여 임의계속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자를 산출하고, 59세 가입자 및 대기자 중 60세에 도달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비율(신규가입률)을 적용하여 신규 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21년에 최대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만족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변동 이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8년도에 예상된다.

8) 소득이 없는 젊은 층은 26세까지 가입이 유예되지만 18세가 되는 달에 최초의 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추진 중에 있어(서울신문, 2026.4.1.) 임의가입자의 증가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나. 전망 결과

가입자 전망 결과, 총 가입자 수는 2025년 말 2,181만 명에서 2026년 말 2,140만 명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 2030년 말에는 2,05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는 2025년 1,462만 명에서 2030년 1,391만 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는 2025년 641만 명에서 2030년 564만 명으로 감소하며,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가입자는 앞서 언급한 추납 증가의 영향으로 2025년 33만 명에서 2026년 37만 명으로 증가한 후 2030년에는 41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25년 45만 명에서 2026년 소폭 감소한 후 202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되어 2030년에 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이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표 Ⅲ-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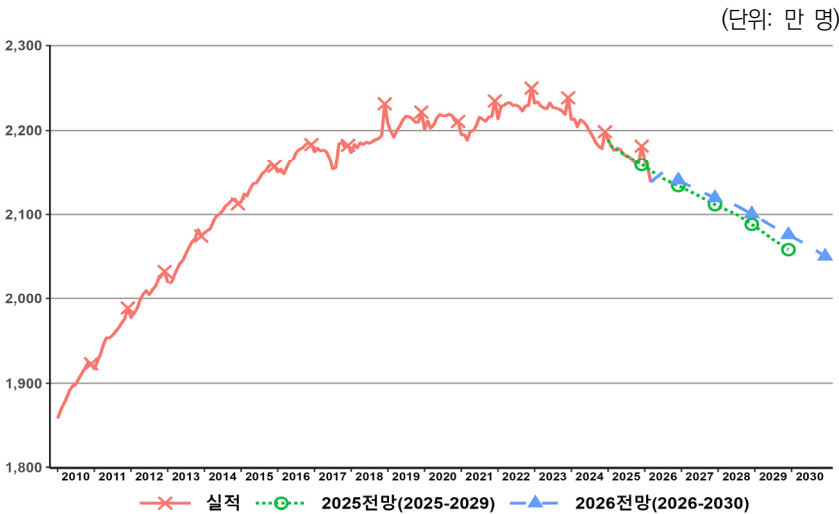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가입자	21,814,633 (-0.77%)	21,404,940 (-1.88%)	21,194,515 (-0.98%)	21,005,369 (-0.89%)	20,761,543 (-1.16%)	20,506,422 (-1.23%)
사업장 가입자	14,615,523 (-0.41%)	14,461,410 (-1.05%)	14,344,944 (-0.81%)	14,210,280 (-0.94%)	14,060,419 (-1.05%)	13,912,632 (-1.05%)
지역 가입자	6,410,507 (-1.58%)	6,130,673 (-4.37%)	6,012,309 (-1.93%)	5,888,637 (-2.06%)	5,761,120 (-2.17%)	5,637,068 (-2.15%)
임의	333,717 (5.63%)	366,975 (9.97%)	383,537 (4.51%)	394,568 (2.88%)	400,090 (1.40%)	405,605 (1.38%)
임의 계속	454,886 (-5.08%)	445,882 (-1.98%)	453,725 (1.76%)	511,884 (12.82%)	539,914 (5.48%)	551,117 (2.07%)

주: 1) 연도 말 기준이며, 2025년도 값은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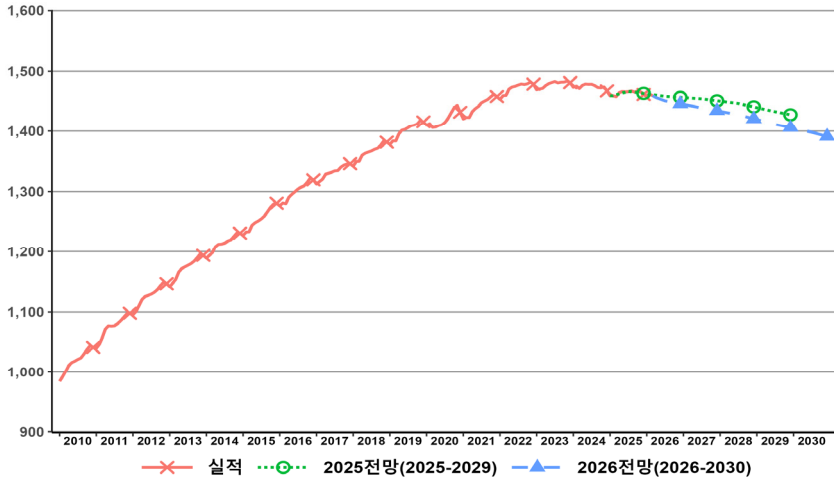
2) ()은 연간 증감률임.

〔그림 Ⅲ-6〕 총 가입자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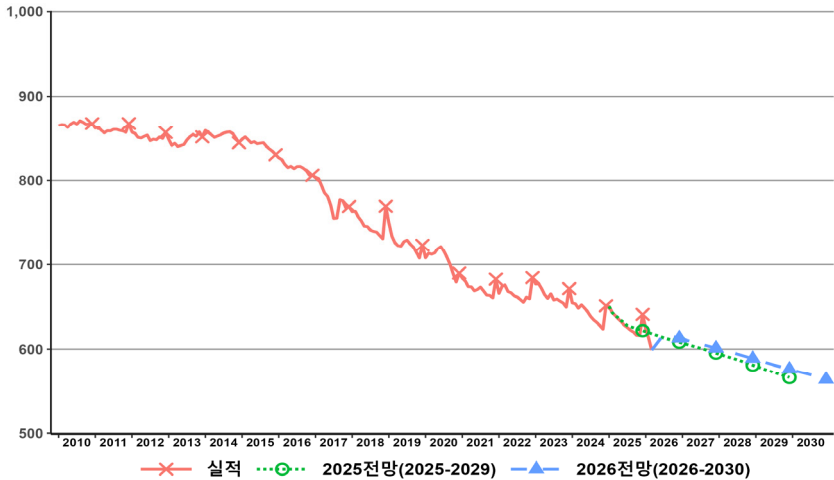
[그림 Ⅲ-7] 사업장가입자 실적 및 전망

(단위: 만 명)



[그림 Ⅲ-8] 지역가입자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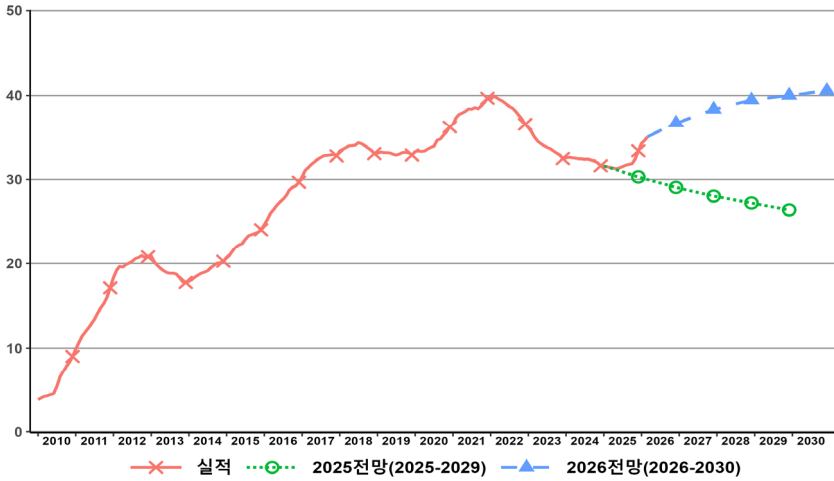
(단위: 만 명)



2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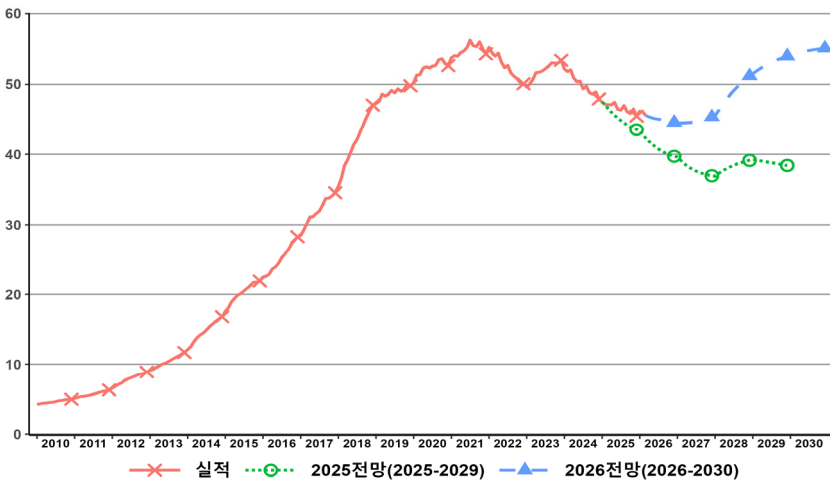
[그림 Ⅲ-9] 임의가입자 실적 및 전망

(단위: 만 명)



[그림 Ⅲ-10] 임의계속가입자 실적 및 전망

(단위: 만 명)



IV.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1. 연금보험료 수입 현황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025년 연금보험료 총 징수액⁹⁾은 60조 9,108억 원이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 징수액이 54조 6,31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가입자는 5조 545억 원, 임의(임계)가입자는 1조 2,245억 원이다. 2025년 징수액은 2024년 말과 2025년 말 누적 징수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연간 증가분으로 해당 연도의 실질적인 보험료 유입 규모를 나타낸다.

〈표 IV-1〉 연금보험료 징수 현황(2025.12)

(단위: 억 원)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임계)가입자
2025년	609,108	546,318	50,545	12,245

주: 연간 금액이며, 2024년 말 징수금액(누계)과 2025년 말 징수금액(누계)의 차이로 산출
자료: 국민연금 사업통계

기금통계 상의 연금보험료 수입은 2010년 약 25.9조 원에서 2025년 62.9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는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에 따른 평균소득월액 상승, 그리고 징수율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가입자 수 측면에서는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사업장가입자 수는 2010년 1,041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1,481만 명에 달하였다. 2020년에는

9) 본 자료의 연금보험료 징수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통계상의 연금보험료 수입과 집계 기준 등의 수치 차이 발생

2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납부예외자가 증가하는 등 수입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다. 이후 2021년부터 경기 회복과 함께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연금보험료 수입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표 IV-2〉 연금보험료 수입 현황(2010~2025)

(단위: 억 원)

연도	연금보험료 수입	연도	연금보험료 수입
2010	252,857	2018	443,735
2011	274,346	2019	478,001
2012	301,277	2020	512,172
2013	319,067	2021	535,402
2014	340,775	2022	559,140
2015	364,261	2023	583,698
2016	390,359	2024	617,392
2017	417,849	2025	638,803

자료: 국민연금 기금통계

2.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가. 전망 가정 및 방법

연금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수에 평균소득, 징수율, 소득신고자 비율(1-납부예외자 비율),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성별·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산출한다.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수입 =

$$\text{가입자 수}_{\text{사업장}} \times \text{평균소득}_{\text{사업장}}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text{징수율}_{\text{사업장}}$$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수입 =

$$\text{가입자 수}_{\text{지역}} \times \text{평균소득}_{\text{지역}}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1 - \text{납부예외자 비율}_{\text{지역}}) \times \text{징수율}_{\text{지역}}$$
- 임의(임계)가입자 연금보험료 수입 =

$$\text{가입자 수}_{\text{임의(임계)}} \times \text{평균소득}_{\text{임의(임계)}}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text{징수율}_{\text{임의(임계)}}$$

다음에서는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에 적용되는 주요 변수인 평균소득월액, 징수율, 납부예외자 비율의 가정을 차례로 살펴본다.

1) 평균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소득은 소득 하한과 상한이 설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의미한다. 상·하한은 매년 7월 A값(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되어 공시된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 적용된다.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10년 약 207만 원에서 2025년 약 361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산업 평균임금 역시 약 264만 원에서 408만 원 수준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인

3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임금 상승 흐름이 평균소득월액 증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03년 이전까지 전산업(全産業) 평균 임금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 이후에는 표준소득월액¹⁰⁾ 등급표 상한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표 IV-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현황(2010~2025)

(단위: 원)

연월	사업장가입자 ¹⁾		전산업 ²⁾		비율 (A/B)
	평균소득월액 (A)	상승률	평균임금 (B)	상승률	
2010.7	2,068,187	2.12%	2,636,260	2.62%	78.45%
2011.7	2,142,997	3.62%	2,816,188	6.83%	76.10%
2012.7	2,220,067	3.60%	2,607,006	-	85.16%
2013.7	2,289,010	3.11%	2,743,504	5.24%	83.43%
2014.7	2,358,197	3.02%	2,836,631	3.39%	83.13%
2015.7	2,433,148	3.18%	2,904,080	2.38%	83.78%
2016.7	2,495,615	2.57%	2,991,329	3.00%	83.43%
2017.7	2,598,943	4.14%	3,105,742	3.82%	83.68%
2018.7	2,700,857	3.92%	3,206,792	3.25%	84.22%
2019.7	2,830,466	4.80%	3,375,933	5.27%	83.84%
2020.7	2,948,652	4.18%	3,490,415	3.39%	84.48%
2021.7	3,019,478	2.40%	3,527,356	1.06%	85.60%
2022.7	3,176,217	5.19%	3,688,916	4.58%	86.10%
2023.7	3,368,326	6.05%	3,869,461	4.89%	87.05%
2024.7	3,503,110	4.00%	3,965,994	2.49%	88.33%
2025.7	3,608,643	3.01%	4,079,258	2.86%	88.46%

주: 1)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7월 기준

2) 전산업 평균임금은 2011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그 이후는 1인 이상임에 따라 상승률은 제시하지 않음

3) 2025년까지는 실적이며,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업 임금은 전년도 평균임금을 당년도에 표시하였음.
즉, 2025년도에 제시된 평균임금은 2024년도 평균임금을 나타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10) 2007.7 연금법의 개정으로 명칭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

급증하면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사업장가입자의 범위가 5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됨에 따라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10년 약 207만 원에서 2025년 약 361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산업 평균임금 대비 비율도 2010년 78.5%에서 2025년 88.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초기에 나타났던 소득 격차가 완만하게 축소되어 온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수치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IV-4〉는 매년 6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하한 소득자 비중은 2010년 0.30%에서 2023년 0.71%까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5년 6월 기준 0.6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7월 새로운 소득 기준 적용 시 하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하한 소득자 비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괄호 안의 수치에서 이러한 상향 조정 효과가 매년 양(+)의 값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1%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평균소득월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한 소득자 비중은 2010년 17.5%에서 2025년 6월 기준 15.2%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7월 상한 조정 시 비중 변화를 나타내는 괄호 안의 수치는 대체로 양(+)의 값을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으며, 이는 상한이 A값 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됨에 따라 상한 초과 가입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상한 소득자 비중이 여전히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평균소득월액을 하방으로 제약하는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4〉 상·하한 소득자 비중(2010~2025)

(단위: 만 원, %, 단 ()은 %p)

연월	하한 소득자				상한 소득자			
	하한액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상한액	비중	비중의 변동	평균
2010.6	23	0.30	-	-	368	17.49	-	-
2011.6	23	0.23	61.31	99.66(- 0.07)	375	16.79	99.98	99.44(2.14)
2012.6	24	0.24	96.85	97.93(0.09)	389	17.51	99.92	99.29(0.68)
2013.6	25	0.25	97.03	97.59(0.09)	398	17.55	99.76	99.68(1.23)
2014.6	26	0.26	96.50	97.64(0.11)	408	17.86	99.75	99.55(0.94)
2015.6	27	0.27	96.82	97.31(0.09)	421	17.82	99.59	99.52(0.74)
2016.6	28	0.27	97.24	97.35(0.14)	434	17.40	99.50	99.41(0.14)
2017.6	29	0.32	97.59	97.86(0.12)	449	17.58	99.89	99.41(0.92)
2018.6	30	0.35	97.47	97.77(0.08)	468	17.26	99.73	99.58(0.04)
2019.6	31	0.36	98.38	98.59(0.12)	486	16.95	99.95	99.82(0.36)
2020.6	32	0.42	98.80	98.64(0.12)	503	16.92	99.41	99.79(0.13)
2021.6	33	0.47	98.26	98.80(0.27)	524	16.29	99.16	99.59(- 0.19)
2022.6	35	0.62	98.26	98.43(0.26)	553	15.86	100.16	99.86(0.29)
2023.6	37	0.71	97.94	97.96(0.10)	590	15.98	100.08	99.91(- 0.05)
2024.6	39	0.65	98.49	98.01(0.15)	617	15.81	100.11	99.93(- 0.15)
2025.6	40	0.65	98.41	98.10(0.02)	637	15.20	99.61	99.73(0.51)

주: 평균에 제시된 수치는 전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매월 비중의 변동의 평균이며,
()안은 6월과 새로운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7월의 비중의 변화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이와 같은 실적을 근거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였다.

먼저, 새로운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매년 7월의 상·하한 소득자 비중과 7월 이후 이듬해 6월까지의 월별 비중 변동을 설정하여야 한다. 7월을 제외한 매월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월별 변동률은 최근 2년간 월별 변동률의 평균¹¹⁾인 98.06%(하한)와 99.83%(상한)를 각각 적용하였다. 매년

11) 이전에는 단기적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평균을 적용하였으나,

7월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될 때의 비중 변동폭은 최근 2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하한 소득자 0.08%p, 상한 소득자 0.18%p를 각각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7월을 제외한 매월의 상·하한 소득자 비중은 전월 비중에 월별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7월의 비중은 전월 비중에 변동 폭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이 매월 상·하한 소득자 비중이 설정되면, 매년 7월에 새로운 소득 기준을 반영한 평균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7월의 평균소득은 상·하한 소득에 해당 비중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득이 하한 초과 상한 미만인 가입자의 소득은 전년도 7월 동일 소득 계층의 평균소득에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상한 소득자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다¹²⁾. 다만, 매년 7월 새로운 소득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년도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가입자에 한하므로, 7월의 사업장가입자 중 일부는 전년도 소득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새로운 상·하한 소득 및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소득과 전년도 7월의 평균소득을 일정 조건¹³⁾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해당 연도 7월의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을 최종 산출한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새로운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매년 7월에 상승한 후 이듬해 6월까지 감소하는 계절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중기재정전망에서도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였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1회 소득이 신고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평균소득월액의 변동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초기에는 불규칙한 변동을 보였으나,

2023년 이후 상·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양상이 이전과 상이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번 전망에서는 최근 2년간의 평균을 적용함

12) 상한 소득자 중 10%에 대해서는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하였으며, 이 비율은 전망과 실적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설정

13) 2016년 7월에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는 999만 9,478명으로, 이는 2015년 말 사업장가입자 1,280만 5,582명의 약 7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22%는 전년도 소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2006년 이후부터 연 1회 상승한 후 익년도 상승 시점까지 감소하는 패턴이 정착되었다. 이는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소득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신고소득과의 괴리가 발생한 가입자의 소득을 조정하는 업무 방식에 기인한다. 자료 입수 시기는 당초 12월이었으나 2014년부터 1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의 일시적 상승 시점도 11월로 변경되었다가, 2018년 이후 자료 입수 시기가 다시 12월로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이 12월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이후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여 전망에서는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매년 12월에 상승하고 이후 하락하는 패턴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월별 추계에는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며, 12월의

〈표 IV-5〉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현황(2010~2025)

(단위: 원)

연월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월 대비 상승률
2010.12	1,115,240	3.41%
2011.12	1,136,871	2.14%
2012.12	1,165,767	3.83%
2013.12	1,176,827	3.38%
2014.12	1,202,480	-0.17%
2015.12	1,237,179	-0.12%
2016.12	1,268,783	-0.17%
2017.12	1,316,138	-0.07%
2018.12	1,330,139	3.63%
2019.12	1,348,276	3.88%
2020.12	1,377,611	4.33%
2021.12	1,406,523	4.11%
2022.12	1,426,172	4.48%
2023.12	1,443,669	5.26%
2024.12	1,461,190	5.21%
2025.12	1,487,976	5.4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상승률인 5.29%를 적용하였다.

평균소득월액 전망 결과,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25년 약 360만 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0년 약 433만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25년 약 149만 원에서 2030년 약 159만 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A값 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된다. 하한은 2025년 7월 40만 원에서 2030년 46만 원으로, 상한은 2025년 7월 637만 원에서 2030년 7월 742만 원으로 전망된다. 상한의 증가 폭이 하한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A값 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소득 수준의 절대적 차이로 인해 증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IV-6〉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단위: 원)

구분	가입자 전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6.12	3,273,663	3,725,492	1,505,427
2027.12	3,388,785	3,863,844	1,526,870
2028.12	3,518,616	4,019,828	1,548,618
2029.12	3,645,135	4,170,744	1,570,675
2030.12	3,776,079	4,326,580	1,593,047

〈표 IV-7〉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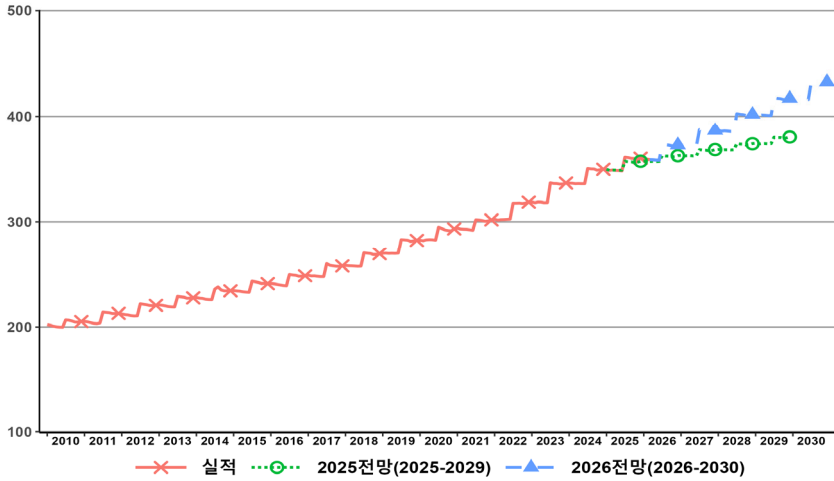
(단위: 원)

적용기간	최저기준소득월액	최고기준소득월액
2026.7~2027.6	410,000	6,590,000
2027.7~2028.6	420,000	6,760,000
2028.7~2029.6	430,000	6,950,000
2029.7~2030.6	440,000	7,160,000
2030.7~2031.6	460,000	7,420,000

3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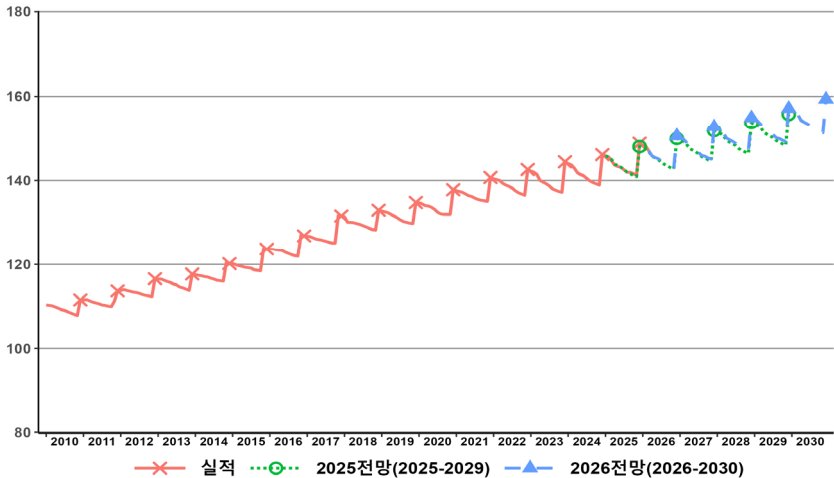
[그림 IV-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단위: 만 원)



[그림 IV-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단위: 만 원)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이상을 적용하되,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중위수 소득 이하로도 적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두 집단 간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하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소득 수준은 최근 실적(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임의가입자의 월별 평균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은 2010년 이후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다만, 최근 임의계속가입자 수의 감소 추이와 함께 평균소득은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정체 현상이 계속될 것인지 혹은 이전과 같이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급연령이 조정된 2018년에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보였으며, 수급연령이 다시 조정되는 2023년에도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임의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최근 실적(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월별 평균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IV-8〉 임의(임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현황(2010~2025)

(단위: 원)

연월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월 대비 상승률	평균소득월액	전월 대비 상승률
2010.12	1,115,240	1,312,834	-1.04%	1,123,714	0.12%
2011.12	1,136,871	1,252,021	-0.43%	1,141,566	0.05%
2012.12	1,165,767	1,245,179	-0.09%	1,160,543	0.40%
2013.12	1,176,827	1,234,175	-0.04%	1,200,965	0.64%
2014.12	1,202,480	1,225,516	-0.15%	1,249,404	0.05%
2015.12	1,237,179	1,231,081	0.04%	1,283,483	-0.12%
2016.12	1,268,783	1,246,087	-0.08%	1,325,267	0.24%
2017.12	1,316,138	1,248,971	-0.10%	1,367,724	-0.06%
2018.12	1,330,139	1,250,997	-0.05%	1,448,910	0.64%
2019.12	1,348,276	1,250,616	-0.02%	1,486,688	0.49%
2020.12	1,377,611	1,244,109	-0.24%	1,525,084	0.56%
2021.12	1,406,523	1,239,672	-0.16%	1,565,688	0.58%
2022.12	1,426,172	1,225,691	-0.09%	1,572,272	0.63%
2023.12	1,443,669	1,215,241	-0.12%	1,622,500	1.01%
2024.12	1,461,190	1,208,715	-0.09%	1,655,774	0.74%
2025.12	1,487,976	1,202,318	-0.39%	1,713,208	0.82%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평균소득월액 전망 결과,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26년 약 119만 원에서 2030년 약 116만 원으로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는 반면,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26년 약 177만 원에서 2030년 약 198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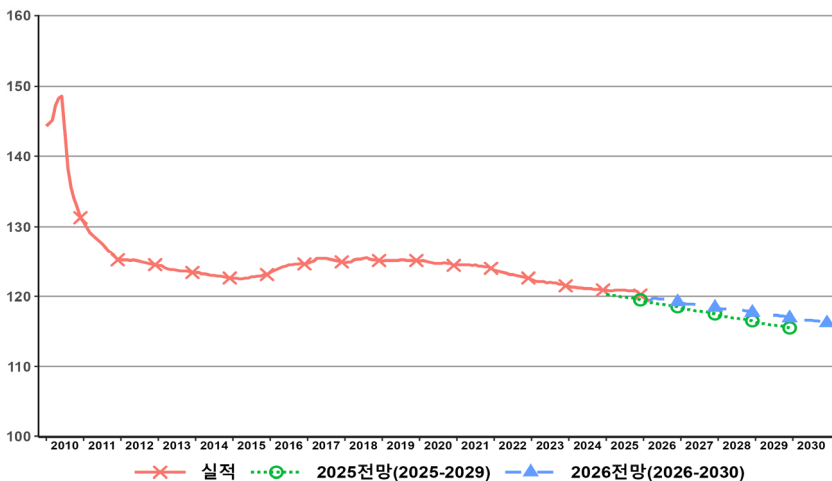
〈표 IV-9〉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단위: 원)

구분	가입자 전체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2026.12	3,273,663	1,191,754	1,765,971
2027.12	3,388,785	1,184,133	1,817,243
2028.12	3,518,616	1,176,560	1,870,004
2029.12	3,645,135	1,169,037	1,924,296
2030.12	3,776,079	1,161,561	1,980,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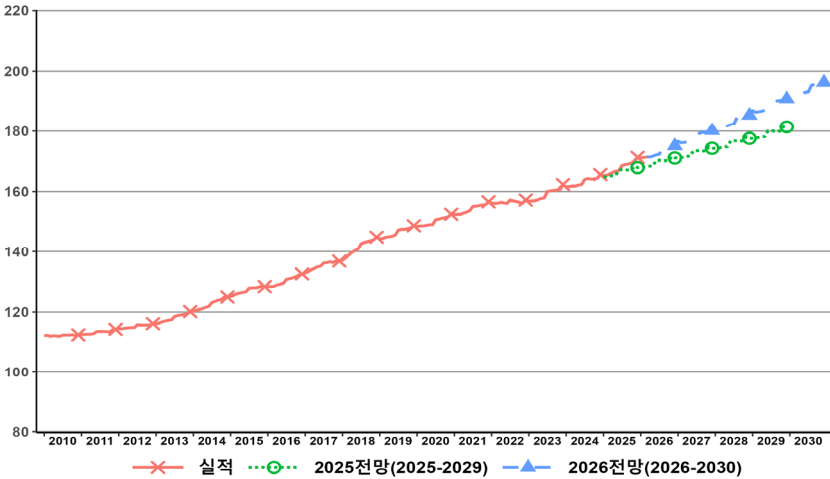
[그림 IV-3] 임의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단위: 만 원)



[그림 IV-4] 임의계속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실적 및 전망

(단위: 만 원)



2) 징수율¹⁴⁾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m 월분의 연금보험료를 $m+1$ 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추계모형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m+1$ 월의 연금보험료는 m 월의 가입자 수와 평균소득월액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을 위해서는 가입자 수와 평균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뿐만 아니라, 징수율과 납부예외자 비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추계모형에서 연금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수와 평균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의 곱에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가입자 수와 평균소득월액 및 연금보험료율의 곱은 매월 고지되는 연금보험료의 총액, 즉 정기분 고지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모형에서는 연체료 등에 의한 고지금액 증액이 반영되지 않으며, 반납·추납 등 정기 고지 이외의 연금

14) 2020년부터 국민연금 통계연보에서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통계가 제외됨에 따라 “중기 재정추계모형 개선(2022, 신경혜 외)”에서 새로운 징수율 산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매년 중기전망에 적용함. 단, 2024년도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통계가 현재 공표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중기전망에서 작성된 징수율 산출과정을 준용하였고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인용함.

보험료 수입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형 구조하에서 실적과 유사한 수준의 연금보험료 수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적절한 징수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2020년 이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서 징수통계가 수록되지 않다가 2023년 통계연보 이후 부록에 다시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나, 중기전망 수행 시점에서는 최신 통계연보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 이에 공단 실무부서에서 작성하는 월별 사업실적통계의 연금보험료 징수통계를 검토하여 징수율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표 IV-10〉은 연도별 연금보험료 수입 규모를 월별 사업실적통계와 기금 통계에서 각각 제시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월별 사업실적통계의 징수 통계에는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징수액이 수록되어 있으며,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전년도 12월까지의 누적 징수액과 금년도 12월까지의 누적 징수액의 차이를 해당 연도의 징수금액으로 재산출하여 수록하였다.

한편, 기금통계에도 유사한 개념의 연금보험료 수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적립금 산출 시 적용되는 수치이다. 두 통계를 비교하면, 기금 통계의 연금보험료 수입이 징수통계의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징수통계가 수납일 기준으로 산출되는 반면, 기금통계는 연금보험료 납입 후 기금으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표 IV-10〉 연금보험료 징수통계(2023~2025)

(단위: 억 원)

연도	징수통계				기금통계
	계	사업장	지역	임의/임계	
2023	568,041	509,879	45,338	12,824	583,698
2024	595,361	532,663	50,072	12,625	617,392
2025	609,108	546,318	50,545	12,245	638,803

주: 연간 금액이며, 징수통계는 전년도 말 누적징수금액과 금년도 말 누적징수금액의 차이임
자료: 국민연금 사업통계(각 연도 말)

4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한편, 기금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금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일반징수분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출하고 있는 반·추납 보험료로 구분된다. 이를 근거로 <표 IV-11>을 작성하였으며, 표의 총계는 기금통계의 금액과 일치한다. 일반징수 소계는 총계에서 반·추납을 제외한 금액이며, 가입종별 일반징수 연금보험료는 해당 소계를 기준으로 징수 통계의 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이다.

<표 IV-11> 기금수입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의 재구성(2023~2025)

(단위: 억 원)

연도	총계	일반징수				반·추납
		소계	사업장	지역	임의/임계	
2023	583,698	575,566	516,633	45,939	12,993	8,132
2024	617,392	604,618	540,945	50,851	12,821	12,775
2025	638,803	618,239	554,508	51,302	12,429	20,564

주: 일반징수의 가입종별 징수금액은 징수통계의 종별 비중을 기금통계의 연금보험료 금액에서 반추납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한 것임

자료: 국민연금 사업통계, 기금운용본부 내부자료

중기전망의 주요 목적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도 기금통계의 연금보험료 수입에 근사하도록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일반징수를 구성하는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추정치를 근거로, 전망의 산출방식에 맞추어 가입종별 징수율을 도출하였다.

<표 IV-12>는 해당 연도의 가입자 및 평균소득 실적을 적용하여 연간 총 고지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가입종별 일반징수금액과 비교하여 역산한 징수율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반·추납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입은 관련 자료가 별도로 확보되므로, 일반징수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전망에 적용된 가입종별 징수율은 2023년~2025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는 99.43%, 지역가입자는 89.94%,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97.85%이다. 반·추납 연금보험료는 일반징수금액 대비 비율의 2022년~2024년의 평균인 2.0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가입종별 징수율과 달리 2022년~2024년 평균을 적용한 이유는 2025년도 반·추납 징수금액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¹⁵⁾ 해당 연도를 포함할 경우 수입이 과대 전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표 IV-12〉 가입종별 징수율 산출(2023~2025)

가입 종별	연도	연금보험료 (억 원)	가입자 (천 명)	평균소득 (천 원)	보험료율 (%)	징수율 (%)
사 업 장	2023	516,633	14,783	3,243	9.00	99.78
	2024	540,945	14,759	3,418	9.00	99.30
	2025	554,508	14,645	3,534	9.00	99.21
지 역	2023	45,939	3,631	1,396	9.00	83.91
	2024	50,851	3,595	1,415	9.00	92.57
	2025	51,302	3,547	1,435	9.00	93.35
임의· 임계	2023	12,993	860	1,438	9.00	97.25
	2024	12,821	829	1,466	9.00	97.66
	2025	12,429	785	1,486	9.00	98.70

주: 1) 가입자는 소득신고자를 의미

2) 변경된 징수율 산출 방식에 따라 일부 연도의 경우 징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남.

3) 납부예외자 비율

납부예외제도는 사업 중단·실업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이다.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012년 중반 이후에는 하락세가 멈추고 55%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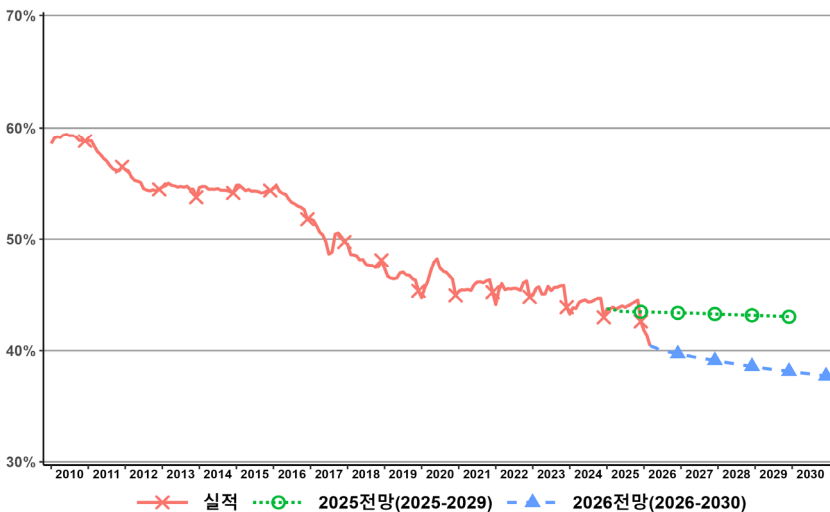
15) 2026년 이후 예정된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앞두고, 2025년에 반납·추납·선납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2016년부터 다시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율의 변동이 확대되었다가 전반적인 정체 이후 2024년에 크게 하락하였다.

납부예외자 비율은 연초에 하락하고 연말로 갈수록 증가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여 왔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로 인해 연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가 재취업을 통해 사업장가입자로 복귀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초에는 1월 이후에도 납부예외자 비율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소득신고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급격한 하락 추이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의 급격한 하락 추이보다는 이전의 완만한 하향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납부예외자 비율의 연간 감소폭(2023~2024년, 2024~2025년 감소폭의 평균 $\nabla 0.80\%p$)을 조정하여 급격한 변화없이 완만한 감소 추이가 반영되도록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납부예외자 비율은 2026년 말

[그림 IV-5]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 실적 및 전망



39.73%, 2027년 말 39.12%로 감소하고, 2030년 말에는 37.76%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금보험료 수입에는 반납금 및 추후 납부에 의한 수입도 반영하였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며, 추후 납부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는 제도이며 최근에는 납부 예외기간 뿐만 아니라 적용제외기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반·추납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5년의 이례적인 추납 증가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2022년~2024년 3년간 일반징수금액 대비 추납 징수금액의 평균 비율인 2.0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¹⁶⁾.

나. 전망 결과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전체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6년 68.6조 원, 2027년 73.5조 원에서 2030년 91.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6년 59.8조 원에서 2030년 80.9조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6년 6.1조 원에서 2027년 소폭 감소한 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2030년 6.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수입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증가 추이가 뚜렷하며, 특히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2028년(16.55%) 및 2029년(17.80%)에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연금보험료를 인상에 기인한다. 다만, 2027년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수 감소의 영향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6) 추납 증가 효과가 향후에도 일부 지속될 수 있으나, 2025년과 같은 이례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가정

46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한편, 연도별 연금보험료율이 개정법의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매년 1월의 연금보험료 수입이 전년도 12월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해당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표 IV-1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단위: 억 원)

연도	총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반·추납
2026	686,211	598,188	60,846	4,829	8,696	13,652
2027	734,504 (7.04%)	646,936 (8.15%)	58,355 (-4.10%)	5,295 (9.66%)	9,305 (7.00%)	14,612 (7.04%)
2028	793,593 (8.04%)	699,729 (8.16%)	61,512 (5.41%)	5,719 (8.00%)	10,845 (16.55%)	15,788 (8.04%)
2029	854,265 (7.65%)	753,890 (7.74%)	64,464 (4.80%)	6,140 (7.36%)	12,776 (17.80%)	16,995 (7.65%)
2030	915,922 (7.22%)	809,594 (7.39%)	67,368 (4.51%)	6,494 (5.77%)	14,245 (11.50%)	18,222 (7.22%)

주: ()은 연간 증감률이며, 2026년의 증감률은 2025년 정확한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실적자료의 부재로 가입종별 연간 증감률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표 IV-14〉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

연도	보험료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2026	598,188	14,543	3,645	9.46	99.43
2027	646,936	14,408	3,779	9.96	99.43
2028	699,729	14,289	3,924	10.46	99.43
2029	753,890	14,139	4,078	10.96	99.43
2030	809,594	13,996	4,231	11.46	99.43

〈표 IV-15〉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

연도	보험료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소득신고자 비율	징수율
2026	60,846	6,151	1,458	9.46	66.43	89.94
2027	58,355	6,076	1,476	9.96	60.56	89.94
2028	61,512	5,958	1,497	10.46	61.12	89.94
2029	64,464	5,829	1,518	10.96	61.61	89.94
2030	67,368	5,705	1,540	11.46	62.02	89.94

〈표 IV-16〉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

연도	보험료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2026	4,829	354	1,197	9.46	97.87
2027	5,295	375	1,189	9.96	97.87
2028	5,719	389	1,181	10.46	97.87
2029	6,140	397	1,174	10.96	97.87
2030	6,494	403	1,166	11.46	97.87

〈표 IV-17〉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

연도	보험료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2026	8,696	453	1,729	9.46	97.87
2027	9,305	447	1,779	9.96	97.87
2028	10,845	482	1,832	10.46	97.87
2029	12,776	527	1,884	10.96	97.87
2030	14,245	546	1,939	11.46	97.87

4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표 IV-18〉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

연도	보험료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2026	74,371	4,893	1,464	9.46	91.46
2027	72,955	4,501	1,482	9.96	91.52
2028	78,076	4,512	1,505	10.46	91.58
2029	83,380	4,515	1,530	10.96	91.75
2030	88,107	4,487	1,555	11.46	91.85

주: 가입자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를 의미함.

V. 급여 지출 및 기타 지출 전망

1. 급여 지출 현황

가. 급여 지급현황

〈표 V-1〉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3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2008년부터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발생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1세 상향됨¹⁷⁾에 따라 수급연령에 도달한 출생코호트의 신규 발생이 없었다¹⁸⁾. 다만, 청구지연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노령연금을 신규로 수급한 자가 발생하면서 신규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여 약 4.1만 명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으로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전년(2012년)보다 더 증가하여 약 8.5만 명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을 합한 신규수급자 수는 약 12.7만 명이며, 전체 수급자는 약 284.1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도 함께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증가하였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94.7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서 약 3.7%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신규수급자가 전년(2014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신규수급자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약

17)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0세였으나,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1세 상향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임.

18) 2012년에는 1952년생이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였으며, 1953년생은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61세가 되는 2014년에 수급을 시작함.

31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9%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령연금 수급자로 발생하면서 2016년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하였다. 2017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져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하였다. 한편, 2017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조기 노령연금 제외) 중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신규수급자의 비중은 약 27.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8.3%, 2015년 21.2%, 2016년 24.7%와 비교할 때 점진적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자 유입과 함께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8년과 2023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1세씩 상향됨에 따라 전년 대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조기노령연금 제외)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수급연령 상향 시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11.2만 명이 발생하였다.

2025년 말 기준 총 수급자 수는 약 790.3만 명¹⁹⁾이며, 이 중 연금 수급자는 약 768.3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약 22만 명으로 나타났다. 급여 지출은 연금으로 48조 1,683억 원, 일시금으로 1조 4,923억 원이 지급되어 총 급여액은 49조 6,605억 원으로 나타났다.

19) 연도 말 누계 기준이며, 1개월이라도 수급한 자는 모두 포함함.

〈표 V-1〉 급여 지급현황(2010~2025)

(단위: 건, 억 원)

연도		총 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
2010	수급자	2,975,336	2,330,128	414,241	79,727	141,347	9,893
	급여액	86,355	68,619	9,492	3,336	4,651	256
2011	수급자	3,166,983	2,489,614	449,735	79,375	136,628	11,631
	급여액	98,193	79,052	10,623	3,474	4,751	293
2012	수급자	3,499,522	2,748,455	485,822	78,796	175,716	10,733
	급여액	115,508	93,271	11,957	3,492	6,480	308
2013	수급자	3,633,770	2,840,660	524,992	78,034	179,440	10,644
	급여액	131,128	107,056	13,302	3,649	6,791	329
2014	수급자	3,748,130	2,947,422	563,996	78,038	146,353	12,321
	급여액	137,799	112,959	14,599	3,661	6,185	395
2015	수급자	4,028,671	3,151,349	605,151	78,285	179,937	13,949
	급여액	151,840	124,151	15,910	3,721	7,597	461
2016	수급자	4,362,254	3,412,350	647,445	78,074	207,751	16,634
	급여액	170,682	140,480	17,218	3,733	8,746	504
2017	수급자	4,692,847	3,706,516	693,141	78,402	201,278	13,510
	급여액	190,839	159,316	18,747	3,911	8,423	441
2018	수급자	4,769,288	3,778,824	742,132	78,806	157,867	11,659
	급여액	207,527	173,840	20,576	4,059	8,591	461
2019	수급자	5,163,110	4,090,497	792,774	80,900	186,921	12,018
	급여액	227,643	190,693	22,636	4,275	9,531	509
2020	수급자	5,588,154	4,468,126	841,817	80,983	184,342	12,886
	급여액	256,541	218,169	24,284	4,314	9,192	582
2021	수급자	6,070,124	4,894,452	892,195	80,623	189,205	13,649
	급여액	291,368	250,833	26,125	4,346	9,408	656
2022	수급자	6,642,643	5,396,729	951,470	79,440	199,170	15,834
	급여액	340,201	295,441	28,818	4,413	10,744	786
2023	수급자	6,822,178	5,543,769	1,007,167	78,527	175,279	17,436
	급여액	390,402	340,709	32,564	4,749	11,470	911
2024	수급자	7,372,039	6,015,091	1,063,301	79,525	196,290	17,832
	급여액	437,048	382,273	36,136	4,947	12,648	1,045
2025	수급자	7,902,646	6,486,471	1,120,364	78,318	199,383	18,110
	급여액	496,605	437,753	39,452	5,024	13,254	1,123

주: 1) 연도 말 누계 기준임.

2) 장애연금은 장애일시금을 포함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5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수급자 수와 급여액 산출을 위한 초기치는 2025년 12월 실적자료이다. <표 V-2>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월 지급액으로 노령연금은 3조 8,207억 원, 유족연금은 3,383억 원,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은 420억 원,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1,151억 원으로 총 4조 3,162억 원이 지급 되었다. 한편, 2025년 연간 총 급여액 중 노령연금은 88.1%, 유족연금은 7.9%, 장애연금(장애일시금 포함)은 1.0%,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2.9%를 각각 차지하였다. 2025년 연간 총 급여액은 49조 6,605억 원으로 직전 연도(43조 7,048억 원)에 비해 5조 9,557억 원(약 13.6%) 증가하였다.

<표 V-2>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총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	장애 일시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2025. 12 ¹⁾	수급자	7,567,113	6,384,651	1,095,558	67,877	234	17,082	1,711
	급여액	43,162	38,207	3,383	368	52	1,041	110
2025 ²⁾	수급자	7,902,646	6,486,471	1,120,364	75,787	2,531	199,383	18,110
	급여액	496,605	437,753	39,452	4,478	546	13,254	1,123

주: 1) 2025년 12월 당월 지급 기준의 월 지급 총액 실적임.

2) 2025년 기준 연간 누계 값임. 즉, 연금 수급자 수는 연도 말 누계 기준이며, 일시금은 연간 총 수급자 수,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나. 중기재정전망과 2025년 실적 비교

중기재정전망(2025~2029)과 2025년 실적 비교는 현재 수행 중인 중기 재정전망(2026~2030)의 전망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 V-3>에 의하면 실적은 전망치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약 4천억 원 수준이다. 이는 총 급여액 대비 0.8% 규모의 오차에 해당한다. 급여 종류별로는 과대 또는 과소 추계가 혼재되어 나타나면서, 개별 급여에서 발생한 오차가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급여별 오차의 크기는 총 급여액 기준의 오차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방법론에서는 급여액을 수급자 수와 1인당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산출하며, 이를 연도별·월별·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급자 수와 1인당 평균급여액에서의 과대 또는 과소 추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경우 전체 급여액 수준에서는 오차가 일부 상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

〈표 V-3〉 급여액 비교

(단위: 억 원, %)

구분		실적(A)	전망(B)	차이(A-B)	비율(A/B)
총 계		496,605	500,623	-4,018	99.2
연금	소계	482,228	486,810	-4,582	99.1
	노령	437,753	439,985	-2,232	99.5
	장애	5,024	4,865	159	103.3
	유족	39,452	41,960	-2,508	94.0
일시금	소계	14,377	13,813	564	104.1
	반환	13,254	12,763	491	103.8
	사망	1,123	1,050	73	107.0

주: 1) 연도 말 누계 기준임.

2) 장애연금은 장애일시금을 포함

〈표 V-4〉 수급자 수 비교

(단위: 명, %)

구분		실적(A)	전망(B)	차이(A-B)	비율(A/B)
총 계		7,902,646	7,832,574	70,072	100.9
연금	소계	7,682,622	7,620,154	62,468	100.8
	노령	6,486,471	6,432,295	54,176	100.8
	장애	75,787	77,330	-1,543	98.0
	유족	1,120,364	1,110,529	9,835	100.9
일시금	소계	220,024	212,420	7,604	103.6
	장애	2,531	2,477	54	102.2
	반환	199,383	192,200	7,183	103.7
	사망	18,110	17,743	367	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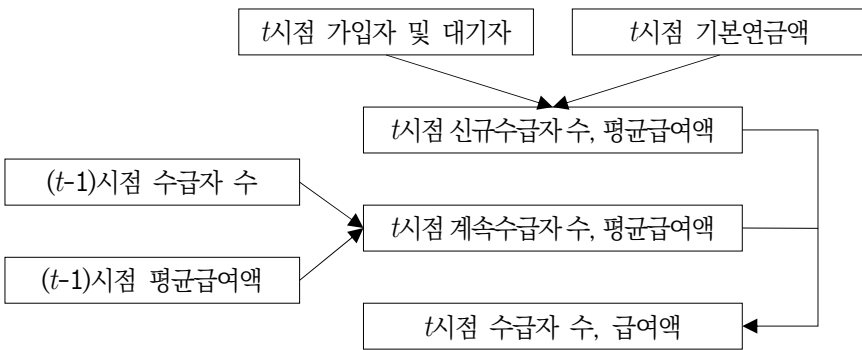
주: 수급자는 연간 누계 기준임.

2. 급여 지출 전망

가. 전망 방법

수급자 수 및 급여액을 전망하는 방법은 급여 종류별로 산출하며, 매월 신규수급자 수와 계속수급자 수를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이들의 급여액을 합산하는 유량(flow) 방식으로 수행한다. 즉, 월별로 유입(발생)과 유출(종료)을 반영하여 누적해 나가는 구조이며, [그림 V-1]은 이러한 추계 방법을 도식화한 흐름도이다.

[그림 V-1]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신규수급자 수는 가입기간별로 분류된 가입자 수와 대기자²⁰⁾ 수를 이용하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계속수급자 수는 전월 기준 전체 수급자 중에서 해당 월에도 계속 수급하는 자로 정의한다. 급여액은 수급자 수와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산출하며, 이를 구분 단위별로 계산한 후 합산한다. 여기서 구분 단위는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구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은 신규수급자 수와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계속수급자의 급여액은 계속수급자 수와 해당 월평균급여액의 곱으로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기본연금액을

20) 대기자는 과거의 가입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가입 중이 아닌 자로서, 아직 수급자가 아닌 가입자이었던 자를 의미함.

이용하여 산출하며, 계속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을 적용한다.

수급자 수와 급여액은 앞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산출되므로, 전망을 위해서는 초기치 설정이 필요하다. 2026~2030년의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을 위해 수급자 수와 평균급여액 등의 실적값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초기값²¹⁾을 설정하고, 2026년 1월부터 매월 전망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신규수급자 수는 해당 월에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체를 산출하거나 필요한 수급률을 적용하여 구하며, 계속수급자 수는 전월 수급자 중 탈퇴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는 자로 산정한다²²⁾. 한편,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2023년부터 63세로 상향되었으며,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59~62세이다.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은 급여 산식에 따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값(A값)과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 소득을 A값으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B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값(A값)은 소비자물가상승률(<표 II-1>)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전망치(<표 IV-7>)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그 결과는 <표 V-5>에 제시하였다.

<표 V-5> A값 전망

(단위: 원)

연도	평균소득월액	A값	적용연도
2025	3,223,983	3,193,511	2026
2026	3,273,663	3,277,303	2027
2027	3,388,785	3,370,569	2028
2028	3,518,616	3,473,020	2029
2029	3,645,135	3,597,623	2030

주: 2025년은 실적치이며, 2026년 1월부터 적용됨.

21) 급여종류별로 초기값을 설정하며, 초기치는 2025년 12월 실적자료의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수급자 수와 평균급여액임(<표 V-2> 참조).

22) 2025년 12월의 수급자 중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2026년 1월 계속수급자로 이월됨.

2019년부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²³⁾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 시 적용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어 매년 1월에 급여액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A값은 약 319만 원이다. 2025년의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은 약 322만 원, 2024년은 약 313만 원, 2023년은 약 302만 원으로 이를 2025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평균한 값이 2025년 A값인 319만 원이며, 이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계속 수급자의 급여액은 전년도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나. 전망 결과

2026년 이후의 수급자 수 및 급여액²³⁾ 전망 결과는 <표 V-6>과 같다. 2026년 수급자 수는 약 828만 명, 총 급여액은 약 56조 원으로 전망된다. 급여액은 수급자 수와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산출되므로 수급자 수 증가와 평균급여액 인상이 함께 반영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 수와 급여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총 급여액은 연평균 약 9.9%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급연령 상향이 적용되는 해인 2028년에는 수급자 수 증가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3) 급여액은 월 단위로 산출하며, 월별 수급자 수와 1인당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계산함. 연간 수급자 수는 별도의 '누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6년의 총 수급자 수는 2025년 12월 수급자 수에 2026년 신규수급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표 V-6〉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

(단위: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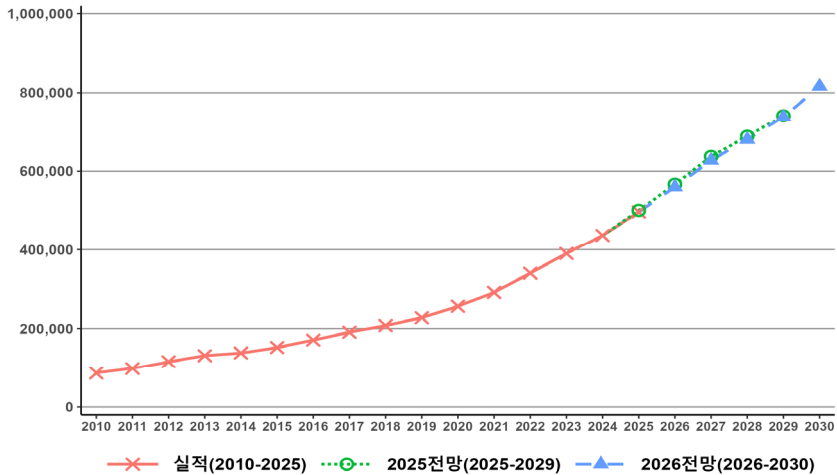
연도		총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편금	장애폭상금	반환금	사망금
2026	수급자	8,276,090	6,815,055	1,173,841	75,812	2,476	190,265	18,641
	급여액	559,753	493,624	46,236	4,565	507	13,649	1,172
2027	수급자	8,812,938	7,290,377	1,220,869	79,036	2,550	201,809	18,297
	급여액	627,175	556,059	49,899	4,897	523	14,579	1,218
2028	수급자	9,000,912	7,415,517	1,283,154	81,713	2,568	200,246	17,714
	급여액	680,413	604,417	53,969	5,235	532	15,022	1,238
2029	수급자	9,527,626	7,882,520	1,347,044	84,205	2,563	194,341	16,953
	급여액	738,003	657,074	58,276	5,556	537	15,314	1,246
2030	수급자	10,059,631	8,353,459	1,412,446	86,489	2,552	188,580	16,105
	급여액	816,629	730,503	62,825	5,853	543	15,658	1,247

주: 1)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2) 연금은 1개월 이상 수급한 연간 수급자 수이며, 일시금은 연간 총 수급자임.

[그림 V-2] 총 급여액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그림 V-2]는 총 급여액 실적과 전망치이며, 전년도에 이루어진 ‘2025 전망’의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2025전망’은 2025년부터 2029년을 전망 기간으로 하였다.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2026전망’이라고 하면²⁴⁾, ‘2026전망’은 ‘2025전망’의 총 급여액보다 낮게 전망되었다. ‘2025전망’에서도 최근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령연금 수급 시작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으나, 2025년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실적 규모는 ‘2025전망’에서의 규모보다 작았다²⁵⁾. ‘2026 전망’에서는 최근 실적과 전망의 차이를 고려하고,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의 증가로 인한 신규수급자 증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2025전망’에 비해 직전 연도인 2025년 물가상승률²⁶⁾이 상승하였으나, ‘2026전망’의 급여액은 2025년 실적치 반영 효과와 전체적인 수급자 수 감소의 영향으로 ‘2025전망’에 비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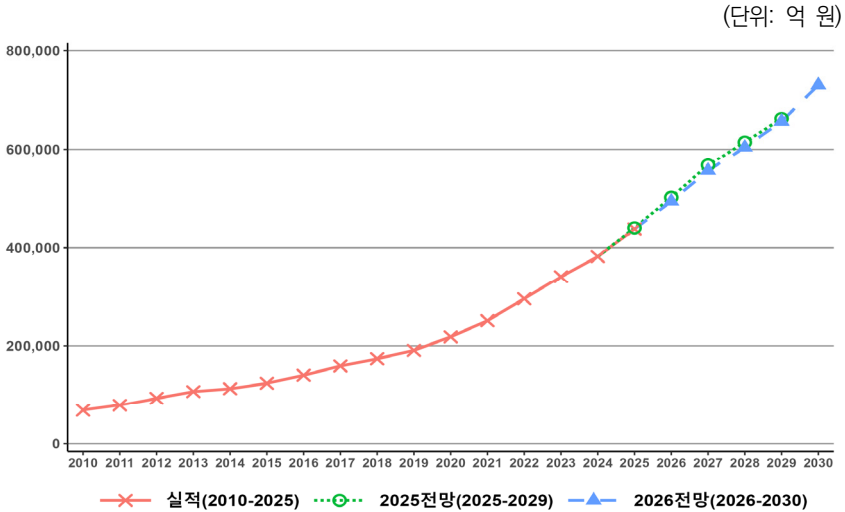
총 급여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령연금이다. 최근 연도인 2025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은 총 급여액의 대부분인 약 8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V-3]은 노령연금의 실적과 전망결과이다. ‘2026전망’은 ‘2025전망’보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급여액 전망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 중기재정전망은 매년 수행되는 과제로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을 전망함. ‘2025전망’은 2024년 4분기와 2025년 1분기에 수행된 결과(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 2025-01)로 2025~2029년을 전망기간으로 하며, ‘2026전망’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을 지칭함.

25) 2025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제외) 신규수급자는 461,328명이며, ‘2025전망’에서는 497,417명으로 전망함.

26) 중기재정전망(2025~2029)에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0%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2.1%임.

[그림 V-3] 노령연금 급여액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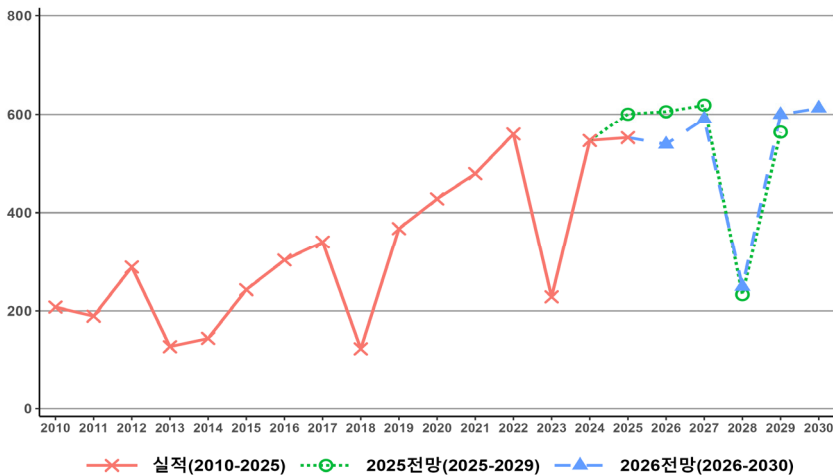


모형에서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도에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이다. [그림 V-4]는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신규수급자 수 실적과 전망 결과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 중 63년생부터 66년생까지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을 가진 자들이 2026년부터 2030년²⁷⁾까지 신규수급자가 발생한다. 2026년 이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표 V-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규모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64세로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2028년에도 청구지연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 신규수급자가 발생하므로, 2018년과 2023년의 수급연령 상향 전후 연도의 증감 패턴을 참고하여 전망하였다.

27) 2028년은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64세로 상향되는 첫해임.

[그림 V-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실적 및 전망

(단위: 천 명)



〈표 V-7〉은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의 인구 수와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가입이력을 통해 그 규모를 비교하였다.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규모는 자료의 발체시점이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다. 다만, 2026년

〈표 V-7〉 출생코호트(63~67년생) 인구 수 및 가입자 수

(단위: 명)

출생연도	인구 수	10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자	노령연금 개시연도
1963년생	867,741	473,009	2026
1964년생	749,260	504,374	2027
1965년생	827,792	516,102	2029
1966년생	820,376	495,103	2030
1967년생	812,175	518,654	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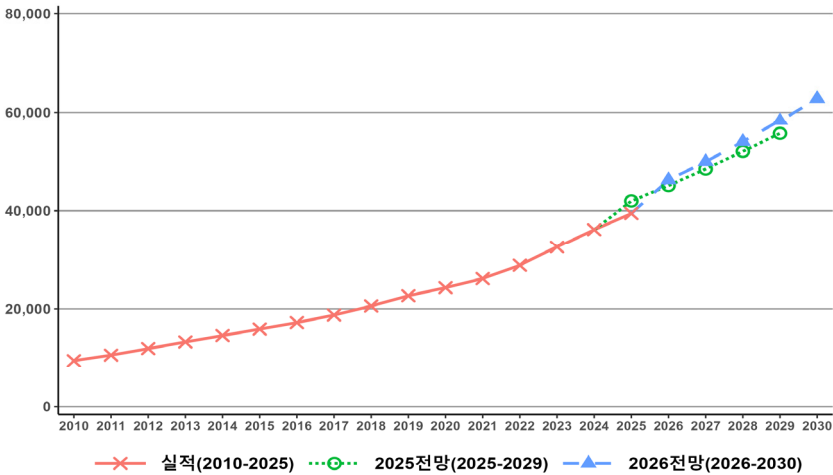
- 주: 1) 인구 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2)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10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자)는 2025. 12 기준(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3) '10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자' 현황은 발체 기준일에 따라 변동됨.
4) 1963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는 64세에 수급 개시됨.

이후 모형에서 산출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규모와 비교에 참고하였다.

유족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V-5] 참조), 총 급여액 중 약 7.9%를 차지한다. 유족연금은 2023년 3조 2,564억 원, 2024년 3조 6,136억 원, 2025년 3조 9,452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개정법(2016.11.30. 시행)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이 완화되었고, 중복 급여 조정으로 인한 유족연금 지급률은 20%에서 30%로 인상되었다. 수급조건 확대와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유족연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V-5] 유족연금 급여액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그림 V-6]은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수 실적과 전망 결과이다.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자 제외²⁸⁾)는 2018~2020년에 약 5.2만 명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2021년은 약 5.5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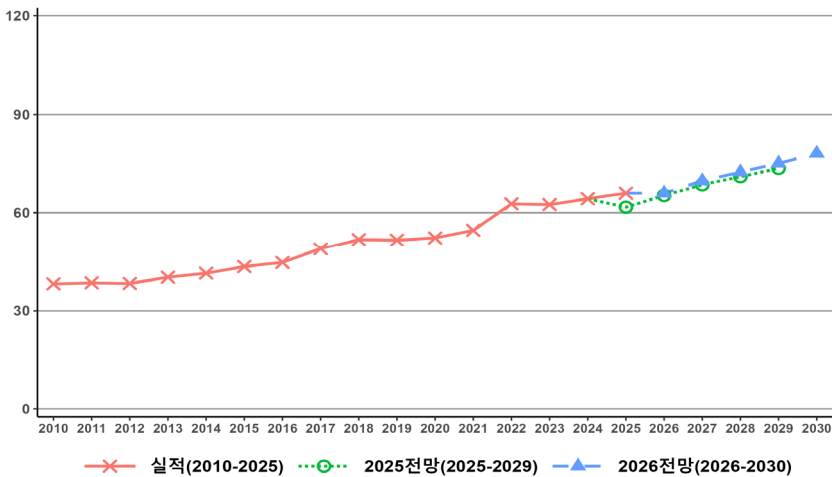
28) 2007년 개정법에 따라 유족연금과 제도 내 다른 급여 간 중복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급여가 유족연금이 아닌 때에는 유족연금의 30%(2016.11.30.부터 30%로 인상)를 지급함. 해당 수급자도 신규수급자로 산정되나, 규모가 작아 본 보고서의 신규수급자 규모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모형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반영함.

6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2022년은 약 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5%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약 6.2만 명으로 직전 연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2024년은 약 6.4만 명, 2025년은 약 6.6만 명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6전망’의 유족연금 신규수급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V-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수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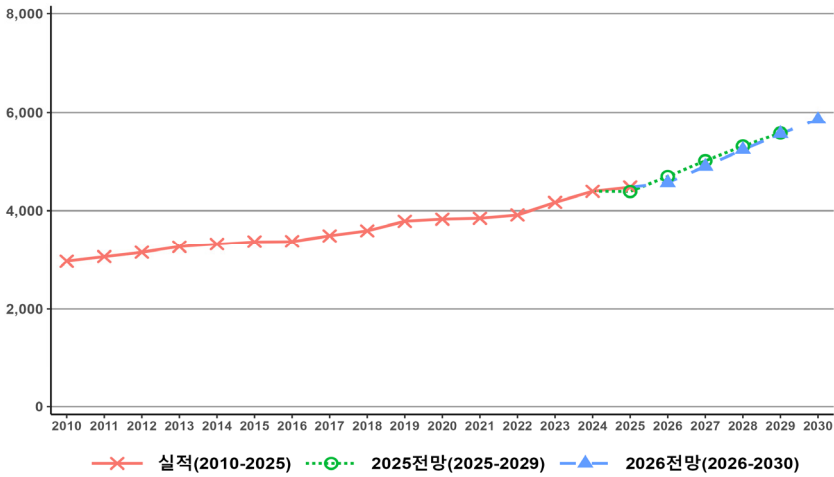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장애연금이 총 급여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연금이 총 급여액의 1.0% 정도(장애일시금 포함)이다 (<표 V-1> 참조). 수급조건이 완화(2016.11.30. 시행)되기 이전의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 수 추이는 [그림 V-8]과 같이 정체하였으나,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은 직전 연도에 비해 약 1천 명 정도 증가하였다. 2019~2021년은 약 8.1천 명, 2022년은 약 8천 명, 2023~2024년은 약 8.5천 명으로 발생하여 정체와 소폭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2025년은 약 7.8천 명으로 2022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전망’은 ‘2025전망’에 비해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전망이 다소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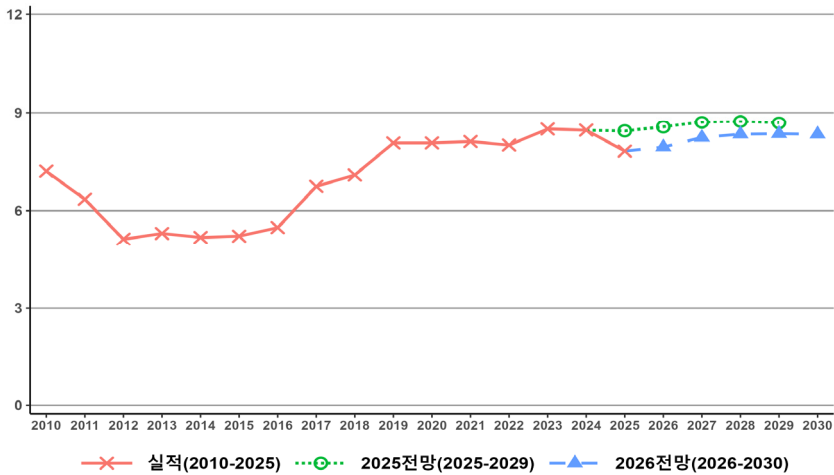
[그림 V-7] 장애연금 급여액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그림 V-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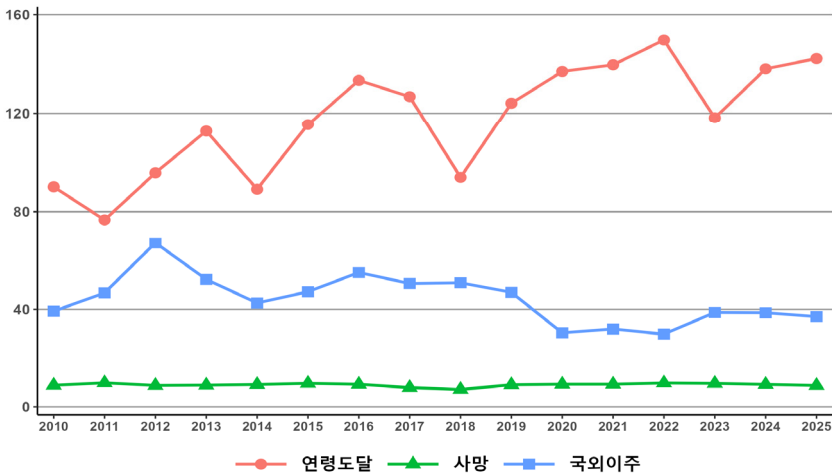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장애일시금을 제외한 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합한 급여액은 2025년 총 급여액 중 약 2.9%를 차지한다(〈표 V-1〉 참조). 반환일시금은 수급사유별로 각각 전망하는데,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나뉜다. 반환일시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령도달로 인한 수급이다. 연령도달로 인한 수급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은 수급연령이 1세 상향되는 해로 직전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약 3만 명, 2021년 약 3.2만 명, 2022년 약 3만 명²⁹⁾으로 감소하였지만, 2023년은 약 3.9만 명으로 다시 반등하였으며, 2024년 약 3.9만 명, 2025년 약 3.7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V-9]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별 수급자 수 실적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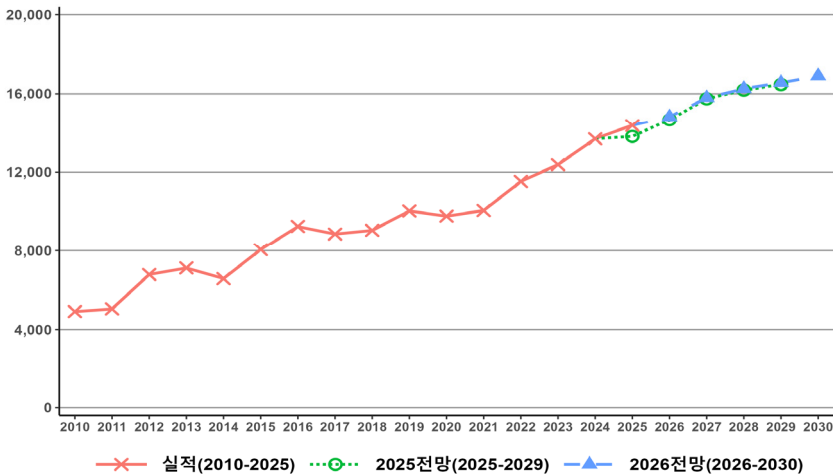


29)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국외출입이 감소한 것으로 단순 추정하고 있음.

[그림 V-10]은 일시금 실적과 전망 결과이다. ‘2026전망’은 ‘2025전망’에 비해 증가하였다. ‘2025전망’에서의 2025년 급여액 전망보다 실적이 많으며, 이는 연령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실적(약 14.2만 명)이 전망(약 13.8만 명)보다 많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전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난 현재에도 팬데믹 이전 추세 수준으로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V-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 급여액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국민연금법 부칙 개정³⁰⁾에 의해 각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반환일시금의 연령도달 수급자는 각 코호트별로 60세에 대부분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코호트별로 60세 도달자를 잠정적인 수급대상으로 하였다. 코호트별로

30)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 시 가입기간 10년 이상은 노령연금, 10년 미만은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됨.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규모는 증감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일시금 중 연령도달의 경우 수급자는 단기적으로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규모는 단기적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3. 급여 종류별 지출 및 기타 지출 전망

가.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199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특례노령연금은 매년 30% 이상의 수급자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신규수급자의 증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2010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V-8>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특례노령연금의 지급현황이다.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액을 전망하기 위하여, 초기치는 2025년 12월의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수급자 수와 월평균급여액으로 한다. 2025년 12월 기준의 수급자 수는 1,061,018명이며, 이들의 월평균급여액은 253,423원이다.

모형에서는 청구지연으로 인한 수급자의 발생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³¹⁾ 신규수급자의 발생³²⁾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수급자 수는 감소하는 구조이다.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은 <표 V-9>와 같다. 2026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약 100.4만 명, 급여액은 약 3조 1,964억 원, 2027년 수급자 수는 약 94.5만 명, 급여액은 약 3조 793억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31) 청구지연에 따른 신규수급자는 점차 감소하여 향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함.

32) 2025년 특례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15명(연간 기준)임.

〈표 V-8〉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2010~2025)

연도	수급자(명)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 수급자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10	30,169	1,644,953	3,609,700	186,468
2011	7,329	1,627,140	3,679,068	191,312
2012	3,503	1,606,125	3,758,848	198,735
2013	2,096	1,581,145	3,794,101	202,967
2014	482	1,553,815	3,783,211	205,778
2015	213	1,525,057	3,758,355	208,462
2016	407	1,495,069	3,707,750	209,858
2017	395	1,463,131	3,660,461	211,900
2018	69	1,429,104	3,629,172	215,723
2019	94	1,391,760	3,601,963	218,987
2020	99	1,353,482	3,512,975	219,923
2021	101	1,312,850	3,422,773	221,157
2022	177	1,269,485	3,376,769	226,855
2023	82	1,216,672	3,404,112	238,666
2024	160	1,164,832	3,373,810	247,508
2025	215	1,111,339	3,287,002	253,423

주: 연도 말 누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V-9〉 특례노령연금 전망

연도	수급자(명)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26	1,004,070	3,196,448	258,702
2027	945,482	3,079,318	264,012
2028	885,164	2,957,737	270,151
2029	823,500	2,823,261	276,377
2030	760,950	2,675,243	282,526

주: 1) 수급자 수는 연도 말 기준

2)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며, 월평균급여액은 전체 수급자에게 지급한 연간 총 급여액과 지급 개월 수를 이용하여 월 급여액의 평균값을 산정한 것임.

나.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연령이 59세 이상 63세 미만³³⁾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수급신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999년 3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표 V-10>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이다.

<표 V-10>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2010~2025)

연도	수급자(명)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 수급자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10	34,189	216,522	1,014,389	425,977
2011	32,454	246,659	1,226,138	446,423
2012	79,044	323,238	1,560,120	467,556
2013	84,956	405,107	2,203,603	476,618
2014	40,257	441,219	2,438,419	485,199
2015	43,447	480,343	2,717,072	496,320
2016	36,164	511,880	2,972,511	505,842
2017	36,669	543,547	3,212,309	515,286
2018	43,544	581,338	3,514,140	534,249
2019	53,607	628,832	3,952,515	554,587
2020	51,883	673,842	4,365,162	569,097
2021	47,707	714,367	4,768,732	583,984
2022	59,314	765,342	5,291,091	612,297
2023	112,031	867,232	6,387,452	665,987
2024	104,318	960,947	7,610,844	707,952
2025	90,684	1,039,253	8,675,248	735,436

주: 연도 말 누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전망하기 위하여, 신규수급자는 수급연령과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만족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신규수급자를

33)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은 2023년부터는 59세 이상 63세 미만이며, 2028년부터는 60세 이상 64세 미만임.

산출한다. 2026년부터는 59세 이상 63세 미만인 자를 잠재적 대상자로 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및 대기자를 가입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중에서 매월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로 산출한다. 따라서 전월 가입자 중 탈퇴하여 금월에 대기자로 전환되는 자와 전월 대기자 중 금월에 재가입하지 않는 자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수에 조기수급률을 곱하여 신규수급자 수를 산출한다.

신규수급자 산출과정에서 적용한 조기수급률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대기자 수와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최근의 실적자료를 통해 산출한 조기수급률을 사용하였다³⁴⁾. 초기치인 2025년 12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24,728명³⁵⁾이며, 평균급여액은 735,436원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매월 신규수급자 수와 계속수급자 수를 산출하고 이들의 급여액을 전망하며, 그 결과는 <표 V-11>과 같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26년 약 8.1만 명, 2027년 약 9.1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급자 수는 2026년 약 109.4만 명, 2027년 약 117.3만 명에

<표 V-11> 조기노령연금 전망

연도	수급자(명)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 수급자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26	81,053	1,094,230	9,572,004	751,098
2027	91,442	1,173,002	10,444,670	765,697
2028	140,609	1,299,591	11,685,066	784,158
2029	131,029	1,415,024	13,126,681	802,992
2030	113,932	1,511,685	14,428,259	819,369

주: 1) 신규수급자는 연간 규모이며, 총 수급자는 연도 말 기준이며 조기재직자를 포함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인데 조기재직자 급여액을 포함하였으며, 월평균급여액은 조기재직자를 제외한 조기수급자의 월평균급여액임.

34) 조기수급률은 2022년도 연구과제 ‘중기재정추계모형 개선’ 결과를 적용함.

35)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에는 소득활동으로 감액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포함함.

7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급여액은 2026년 약 9조 5,720억 원, 2027년 약 10조 4,447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다. 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노령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3세 이상³⁶⁾이면 수급하게 된다. <표 V-12>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노령연금 수급자(20년 미만)의 실적자료이다.

<표 V-12> 노령연금(20년 미만) 지급현황(2010~2025)

(단위: 건, 억 원, 원)

연도	노령연금(20년 미만, 소득활동 제외)			노령연금(20년 미만, 소득활동)		
	총 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총 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0	379,031	17,086	418,978	24,790	1,183	439,682
2011	497,908	22,362	408,788	25,982	1,155	412,897
2012	654,985	29,095	407,016	28,057	1,081	360,898
2013	713,332	33,546	411,603	25,693	1,132	376,384
2014	763,861	35,846	408,265	26,583	1,076	365,250
2015	911,322	41,130	403,700	28,106	1,083	375,102
2016	1,097,091	49,028	397,499	31,492	1,285	431,707
2017	1,303,529	57,801	393,774	31,619	1,327	471,371
2018	1,355,280	63,573	396,154	32,096	1,616	498,133
2019	1,546,660	69,662	397,784	34,322	1,529	534,530
2020	1,768,994	79,439	396,059	36,081	1,623	556,879
2021	2,014,486	90,508	395,214	34,125	1,602	567,788
2022	2,279,933	104,398	402,375	35,279	1,696	580,231
2023	2,344,628	117,098	419,461	33,874	1,964	615,906
2024	2,572,839	128,032	433,087	33,122	1,740	630,353
2025	2,805,982	142,880	441,639	32,418	1,733	629,367

주: 총 수급자는 연도 말 지급 기준이며, 총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36)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2023년부터 63세 이상, 2028년부터는 64세 이상임.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 받는다³⁷⁾. 또한, 연금의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의 증액률이 적용된다³⁸⁾. 2025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20년 미만)는 2,838,400명(소득활동 하는 자 포함), 이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20년 미만)는 32,41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0년 미만) 중 약 1.1%가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은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노령연금 수급자의 실적 자료이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는 1,352,281명(소득활동 하는 자 포함), 이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는 94,090명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들의 비중(1.1%)에 비해 상당히 높다.

37)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참조.

38)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 참조. 연기연금 수급자 수는 23,178명(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수 3,706,516명 대비 약 0.6% 수준임. 연기연금 신청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모형에는 반영하지 않음. 모형 내 미반영으로 인한 오차는 “연기연금 수급자의 증액률에 따른 증액급여 총량”에서 “연기연금 신청자의 급여액 총량” 간 차이로 발생함. 향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2012년 연기연금제도 도입 이후 연기연금 신청자 누계(2017년 기준)는 73,324명이며, 이 중 2017년 신청자는 18,941명임. 향후 연기연금 전망은 신청자 규모, 연기기간 및 수급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이 수반됨.

7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표 V-13〉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2010~2025)

(단위: 건, 억 원, 원)

연도	노령연금(20년 이상, 소득활동 제외)			노령연금(20년 이상, 소득활동)		
	총 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총 수급자	총 급여액	월평균급여액
2010	44,571	3,368	770,726	12,531	667	551,425
2011	65,385	5,372	791,373	16,512	1,013	610,755
2012	97,380	8,251	819,547	22,776	1,516	656,947
2013	105,882	10,626	848,290	18,586	1,592	746,744
2014	122,648	12,061	869,808	19,480	1,540	745,140
2015	161,035	15,251	883,055	22,033	1,652	789,990
2016	218,264	20,653	884,211	28,040	2,328	931,526
2017	294,431	28,164	892,032	31,527	2,784	1,014,697
2018	306,472	33,143	911,369	30,579	3,441	1,074,307
2019	401,485	39,492	921,764	38,494	3,700	1,146,325
2020	528,081	52,611	930,890	47,950	4,737	1,185,653
2021	687,273	69,748	944,639	57,270	5,779	1,218,703
2022	877,767	93,044	981,140	74,779	7,908	1,281,204
2023	905,853	111,791	1,036,854	71,899	9,785	1,369,016
2024	1,078,603	129,957	1,086,920	83,055	10,091	1,445,668
2025	1,258,191	158,030	1,124,605	94,090	12,213	1,498,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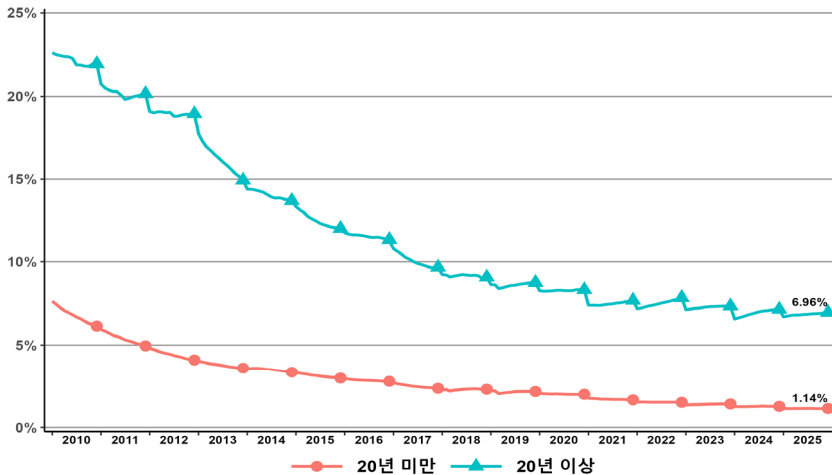
주: 총 수급자 수는 연도 말 지급 기준이며, 급여액은 연간 총액임.

[그림 V-11]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소득활동을 하는 자들의 비율의 월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재직수급률³⁹⁾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구별되며,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2.6%이었던 재직수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2월에는 약 7.0%로 낮아졌다.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2010년 약 7.6%이었던 재직수급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2월에는 약

39) 재직수급률은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자/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로 정의됨.

1.1%까지 낮아졌다.

[그림 V-11] 소득활동을 하는 자(재직수급자) 비율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가입자 및 대기자를 가입기간에 따라 추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사용한다. 즉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자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로 발생하며, 이들 중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구분한다.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를 구분하고 나머지를 노령연금 수급자로 산정한다.

그러므로 해당 월의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매월 임의계속가입자 등을 제외한 대기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와 전월의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탈퇴한 자로 구성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들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를 각각 산출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는 재직수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재직수급률은 실적자료를 토대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의 비율로 산출한다.

한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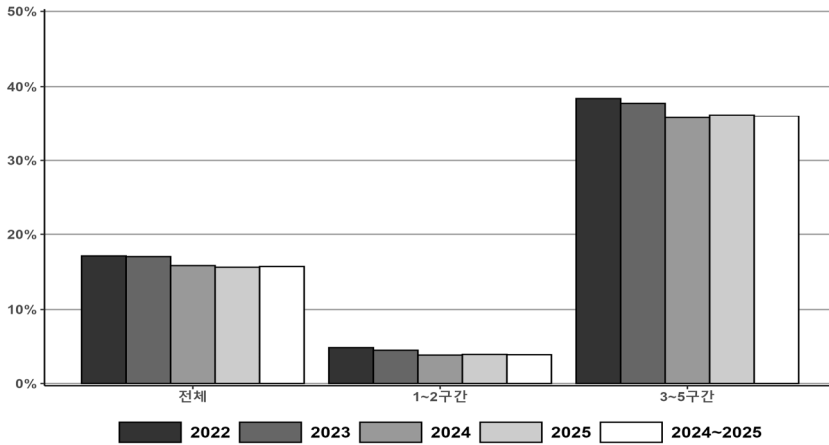
확인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2025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 중 일정 금액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변화가 소득활동 수급자의 급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활동 수급자의 감액 특성을 요약할 수 있는 기초율을 설정하여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활동 수급자에 대한 실적자료는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2024~2025년 자료는 소득활동을 신고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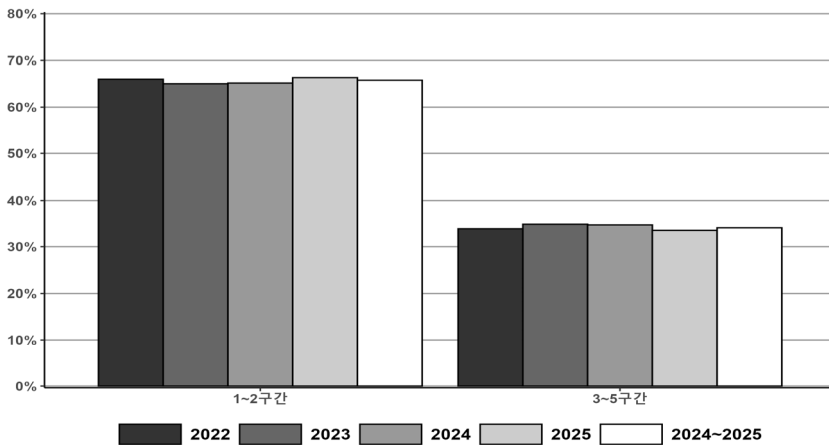
감액률은 실적자료의 감액 전후 평균 노령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연도별·구간별 현황은 [그림 V-12]와 같다. 국제청 과세자료에 따른 확정소득 정산이 반영된 2022~2023년과 소득정산 전인 2024~2025년의 감액률은 차이가 나타난다. 확정소득 정산에는 통상 2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망 시점과 바로 다음 연도의 실적을 고려할 때 소득정산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향후 수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여 2024~2025년 감액률은 자료 추출 시점의 실적 기반으로 약 36.0%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감액 구간별 인원 현황은 [그림 V-13]과 같다. 감액률 분석과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2024~2025년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구간통합 기준 인원 비중은 1~2구간 약 65.8%, 3~5구간 약 34.2%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효과를 전망 모형에 반영하였다.

[그림 V-1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구간통합별 감액률



[그림 V-1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구간통합별 인원 비중



매월 대기자 전망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로 신규수급자 규모는 <표 V-14>와 같다. 2026년에는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약 23.9만 명,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약 21.9만 명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에는 20년 미만인 경우 약 24.9만 명, 20년 이상인 경우 약 25만 명이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급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상향되는 첫해인 2028년의 64세(1964년생)는 2027년부터 신규 발생하였다. 즉, 1965년생은 2029년에 64세로 신규수급이 시작된다. 한편, 2028년에는 2018년과 2023년의 수급연령 상향 전후 증감 패턴을 참고하여 청구지연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탈퇴로 인한 신규수급자 규모를 추정하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V-14〉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전망

(단위: 명)

연도	계	노령연금(20년 미만)	노령연금(20년 이상)
2026	457,575	238,636	218,939
2027	499,045	248,986	250,059
2028	108,468	50,343	58,125
2029	468,747	212,636	256,111
2030	498,788	215,774	283,014

- 주: 1) '신규대상자'는 수급연령과 가입기간이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자임.
 2)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각각 포함한 수치임.

〈표 V-15〉는 노령연금 수급자(20년 미만)의 전망 결과이다. 수급자 수는 2026년 약 300.8만 명, 2027년 약 322.1만 명으로 전망하였으며, 급여액은 2026년 약 15조 8,156억 원, 2027년 약 17조 4,17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V-15〉 노령연금(20년 미만) 전망

연도	총 수급자(명)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26	3,007,600	15,815,591	452,128
2027	3,221,212	17,417,417	464,245
2028	3,231,281	18,444,364	476,539
2029	3,402,507	19,539,650	489,353
2030	3,573,653	21,154,525	503,730

- 주: 1) 총 수급자 수는 연도 말 기준임. 즉 연도 말 기준의 노령연금 수급자(10년 이상 20년 미만, 소득활동 제외)임.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임.

〈표 V-16〉은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의 전망 결과이다. 수급자 수는 2026년 약 145.9만 명, 2027년 약 169만 명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급여액은 2026년 약 19조 452억 원, 2027년 약 22조 8,023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표 V-16〉 노령연금(20년 이상) 전망

연도	총 수급자(명)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26	1,458,591	19,045,200	1,156,203
2027	1,689,954	22,802,311	1,193,106
2028	1,723,974	25,128,921	1,226,870
2029	1,959,107	28,143,929	1,260,095
2030	2,226,042	32,882,206	1,293,062

주: 1) 총 수급자 수는 연도 말 기준임. 즉 연도 말 기준의 노령연금 수급자(20년 이상, 소득활동 제외)임.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임.

〈표 V-17〉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전망 결과이다. 수급자 수는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자와 20년 이상인 대상자를 합한 값이다. 수급자 수는 2026년 약 13.5만 명, 2027년 약 1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급여액은 2026년 약 1조 7,332억 원, 2027년 약 1조 8,622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표 V-17〉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연도	총 수급자(명)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26	135,399	1,733,193	1,195,293
2027	136,790	1,862,212	1,286,316
2028	142,734	2,225,582	1,331,780
2029	140,601	2,073,936	1,387,596
2030	128,941	1,910,136	1,427,055

주: 1) 총 수급자 수는 연도 말 기준이며, 감액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임. 급여액은 법령 시행일(2026.06.17.) 이전에는 1~5구간 모두 감액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1~2구간은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3~5구간은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라. 유족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표 V-18〉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유족연금의 지급현황이다. 유족연금은 1989년부터 지급되었으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V-18〉 유족연금 지급현황(2010~2025)

연도	수급자(명)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 수급자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10	38,132	414,241	949,239	223,348
2011	38,454	449,735	1,062,312	231,340
2012	38,253	485,822	1,195,694	241,790
2013	40,187	524,992	1,330,211	248,591
2014	41,416	563,996	1,459,947	253,573
2015	43,435	605,151	1,591,004	258,989
2016	44,690	647,445	1,721,814	263,105
2017	48,914	693,141	1,874,690	268,625
2018	51,790	742,132	2,057,578	276,974
2019	51,622	792,774	2,263,587	284,892
2020	52,296	841,817	2,428,418	290,646
2021	54,632	892,195	2,612,454	302,856
2022	62,698	951,470	2,881,759	318,101
2023	62,474	1,007,167	3,256,354	342,283
2024	64,252	1,063,301	3,613,581	363,131
2025	65,933	1,120,364	3,945,199	380,361

주: 1) 연도 말 누계 기준

2) 신규수급자는 중복급여로 인한 유족연금(30%) 수급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총 수급자와 총 급여액은 중복으로 인한 수급자도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26년 이후의 유족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액을 전망하기 위한 초기치는 2025년 12월의 유족연금 수급자 실적자료이며,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수급자 수와 이들의 1인당 평균급여액을 이용하였다. 매월 신규수급자 수는

가입자,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및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수에 사망률 및 유유족률(有遺族率)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을 산출하여 총 급여액을 계산한다.

유유족률은 사망자 중에서 유족이 있는 자들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⁴⁰⁾. 유족연금의 신규 발생 규모를 결정하는 기초율 중 사망률은 국가데이터처의 사망률을 적용하고, 유유족률은 최근에 재산출한 변수 값을 적용하였다⁴¹⁾. 사망률은 연간으로 추정된 국가데이터처⁴²⁾의 결과이므로, 월별로 균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유족연금(30%)을 수급하는 자들에 대한 전망은 현재 수준(전체 유족연금 수급자 대비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유족연금(30%)을 수급하는 자의 비율)과 비슷한 추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하고 총 급여액에 합산하였다.

〈표 V-19〉 유족연금 전망

연도	수급자(명)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 수급자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26	65,917	1,137,989	4,623,602	390,596
2027	69,655	1,196,935	4,989,851	402,499
2028	72,318	1,257,541	5,396,902	415,870
2029	74,977	1,319,287	5,827,576	429,538
2030	77,989	1,382,283	6,282,528	443,477

- 주: 1) 신규수급자는 연간 규모이며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유족연금(30%) 수급자를 제외함.
 총 수급자는 연도 말 기준이며 중복급여로 인한 유족연금(30%) 수급자를 포함함.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며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유족연금(30%) 급여액을 포함함.
 3) 월평균급여액은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수급자를 제외한 월평균급여액임.

40) 유족의 제1순위는 배우자이며, 과거에는 여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유족 인정 요건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41) 유유족률 등 기초율은 2022년도 연구과제 '중기재정추계모형 개선' 결과를 적용함.

42) 「장래인구추계 2022~2072」(국가데이터처, 2023)

〈표 V-19〉는 유족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액 전망 결과이다. 유족 연금의 신규수급자는 2026년 약 6.6만 명, 2027년 약 7만 명으로 전망 하였으며, 수급자 수는 2026년 약 113.8만 명, 2027년 약 119.7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급여액은 2026년 약 4조 6,236억 원, 2027년 약 4조 9,89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 장애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표 V-20〉은 2010년⁴³⁾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실적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표 V-20〉 장애연금 지급현황(2010~2025)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총계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79,727	333,604	76,280	296,305	3,447	37,299
2011	79,375	347,466	75,895	305,547	3,480	41,919
2012	78,796	349,116	75,934	314,463	2,862	34,654
2013	78,034	364,905	75,041	326,168	2,993	38,737
2014	78,038	366,075	75,387	331,604	2,651	34,471
2015	78,285	372,090	75,688	336,568	2,597	35,522
2016	78,074	373,380	75,497	337,332	2,577	36,048
2017	78,402	391,147	75,486	349,017	2,916	42,131
2018	78,806	405,867	75,734	359,198	3,072	46,669
2019	80,900	427,566	77,872	378,720	3,028	48,846
2020	80,983	431,397	78,079	383,031	2,904	48,366
2021	80,623	434,690	77,726	384,944	2,897	49,746
2022	79,440	441,230	76,718	391,377	2,722	49,853
2023	78,527	474,894	75,616	416,841	2,911	58,053
2024	79,525	494,691	76,865	439,408	2,660	55,283
2025	78,318	502,373	75,787	447,775	2,531	54,598

주: 연도 말 누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43) 장애연금은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1999년 전 국민 확대 이후 수급자 수가 증가함.

2016년에 시행된 법 개정⁴⁴⁾ 이후 장애연금 신규수급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슷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2026년 이후의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수급자 수와 급여액을 전망하기 위한 초기치는 2025년 12월의 장애연금 수급자 실적자료이며,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수급자 수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을 이용하였다. 매월 신규수급자는 전월의 가입자 수에 장애발생률을 적용하여 금월의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와 장애일시금 수급자 수를 각각 산출한다. 장애발생률은 ‘중기재정추계모형 개선’⁴⁵⁾을 통해서 재산출한 값을 적용하였다. 전월에 이은 계속수급자는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자를 제외하여 계속수급자로 산정하였다. <표 V-21>은 장애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액 전망결과이다.

<표 V-21> 장애연금 전망

연도	수급자(명)		급여액	
	신규수급자	총 수급자	총 급여액(백만 원)	월평균급여액(원)
2026	7,935	70,805	456,463	546,066
2027	8,231	73,381	489,689	565,183
2028	8,332	75,860	523,520	583,732
2029	8,345	78,159	555,564	600,321
2030	8,330	80,268	585,322	614,952

주: 1) 신규수급자는 연간 규모이며, 총 수급자는 연도 말 기준

2)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이고, 월평균급여액은 전체수급자의 월평균급여액이며, 타제도의 급여와의 중복급여(1/2)를 고려한 평균액임.

장애일시금 수급자는 가입자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약 3천 명 미만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6년 이후도 현재 수준과 비슷한 추이로 발생하여 약 2.5천 명 수준이다.

44) 장애연금은 2016.11.30. 법 개정으로 ‘가입 중 발생’ 요건이 완화되어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가 일정한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됨.

45) ‘중기재정추계모형 개선’은 국민연금연구원의 2022년도 연구과제를 의미함.

8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표 V-22〉 장애일시금 전망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수급자	총 급여액
2026	2,476	50,727
2027	2,550	52,300
2028	2,568	53,206
2029	2,563	53,691
2030	2,552	54,331

주: 수급자는 연간 기준이며,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임.

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및 전망

〈표 V-23〉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반환일시금 지급현황이다. 제도 초기 급여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환일시금은 1998년 말 연금법 개정으로 상실 후 1년 경과자에 대한 지급이 1999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다.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증가 추이는 가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V-23〉 반환일시금 지급현황(2010~2025)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총계	1년 경과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타공적연금	기타
'10	건수	141,347	3,278	90,066	8,716	39,202	83	2
	금액	465,123	2,069	262,636	26,684	172,666	1,061	2
'11	건수	136,628	3,430	76,680	9,695	46,683	139	1
	금액	475,051	807	231,409	29,080	213,268	483	2
'12	건수	175,716	4,194	95,706	8,646	67,112	48	8
	금액	648,045	902	308,955	29,870	308,184	119	6
'13	건수	179,440	5,783	112,700	8,763	52,177	15	2
	금액	679,145	905	360,012	32,818	285,369	40	1
'14	건수	146,353	5,679	89,073	9,018	42,549	17	17
	금액	618,469	994	334,869	34,779	247,681	128	17

연도		총계	1년 경과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타공적연금	기타
'15	건수	179,937	7,838	115,437	9,505	47,138	18	1
	금액	759,704	1,063	419,847	38,244	300,473	77	0
'16	건수	207,751	10,168	133,456	9,121	54,991	14	1
	금액	874,649	1,273	458,910	38,283	376,101	72	10
'17	건수	201,278	16,178	126,824	7,774	50,488	14	0
	금액	842,325	1,687	475,260	21,978	343,354	46	0
'18	건수	157,867	6,163	93,882	7,006	50,808	8	0
	금액	859,082	807	452,409	20,337	385,409	119	0
'19	건수	186,921	6,958	124,154	8,927	46,871	11	0
	금액	953,068	872	566,458	29,652	356,055	32	0
'20	건수	184,342	7,741	137,063	9,145	30,385	7	1
	금액	919,192	953	632,165	32,366	253,680	26	3
'21	건수	189,205	8,356	139,751	9,146	31,940	12	0
	금액	940,751	900	651,772	34,195	253,852	33	0
'22	건수	199,170	9,894	149,777	9,635	29,852	12	0
	금액	1,074,442	1,069	733,970	38,219	301,137	47	0
'23	건수	175,279	8,846	118,216	9,478	38,730	9	0
	금액	1,146,957	860	714,004	39,308	392,707	78	0
'24	건수	196,290	10,479	138,128	9,060	38,607	15	1
	금액	1,264,760	1,031	797,561	41,137	424,993	34	3
'25	건수	199,383	11,400	142,313	8,627	37,030	13	0
	금액	1,325,378	1,024	866,768	42,460	415,104	22	0

주: '연령도달'은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포함, '국외이주'는 국적상실 포함, '기타'는 연계제도에 의한 수급자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26년 이후의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은 연령도달, 사망, 그리고 국외이주로 인한 지급만을 고려하였다.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는 가입자 수 및 대기자 수에 적절한 수급률을 적용하여⁴⁶⁾ 산출하였다.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률은 2022년에 재산출한 수급률⁴⁷⁾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산출한 후 최근의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는 최근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1인당 평균지급액은 가입기간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24〉와 〈표 V-25〉는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와 급여액 전망 결과이다. 총 수급자 수는 2026년 약 19만 명, 2027년 약 20.2만 명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환일시금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도달로 인한 수급자는 베이비붐 세대 출생코호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한 이후 2028년 수급연령 상향을 기점으로 감소하며, 2026년 약 14.4만 명, 2027년 15.4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환일시금 급여액은 2026년 약 1조 3,649억 원, 2027년 약 1조 4,57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V-24〉 반환일시금 수급자 전망

(단위: 건)

연도	총계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2026	190,265	144,069	8,787	37,409
2027	201,809	154,202	9,034	38,574
2028	200,246	152,600	8,843	38,799
2029	194,341	147,891	8,393	38,059
2030	188,580	143,683	7,790	37,106

주: 수급자는 연간 기준임.

46) 반환일시금 중 사망 사유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유유족률을 적용하고, 국외이주 사유는 실적 기반으로 산출된 수급률을 적용하며, 최근 실적과 제도 변화를 반영함.

47)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률 기초율은 2022년 연구과제 ‘중기재정추계모형 개선’ 결과를 적용함.

〈표 V-25〉 반환일시금 급여액 전망

(단위: 백만 원)

연도	총계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
2026	1,364,902	899,320	48,329	417,253
2027	1,457,930	956,633	52,645	448,652
2028	1,502,237	979,669	54,368	468,200
2029	1,531,397	1,001,899	54,749	474,749
2030	1,565,798	1,034,450	54,063	477,285

주: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임.

〈표 V-26〉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망일시금의 지급현황이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995년 7월부터 지급되었다.

〈표 V-26〉 사망일시금 지급현황(2010~2025)

연도	수급자(명)	총 급여액(백만 원)
2010	9,893	25,625
2011	11,631	29,287
2012	10,733	30,812
2013	10,644	32,897
2014	12,321	39,535
2015	13,949	46,101
2016	16,634	50,359
2017	13,510	44,106
2018	11,659	46,113
2019	12,018	50,865
2020	12,886	58,187
2021	13,649	65,630
2022	15,834	78,555
2023	17,436	91,128
2024	17,832	104,531
2025	18,110	112,252

주: 건수 및 급여액은 연간 총합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사망일시금의 수급자는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표 V-27>은 사망일시금 수급자와 급여액 전망 결과이다. 2026년 급여액은 약 1,172억 원, 2027년 급여액은 약 1,218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표 V-27> 사망일시금 전망

연도	수급자(명)	총 급여액(백만 원)
2026	18,641	117,222
2027	18,297	121,842
2028	17,714	123,787
2029	16,953	124,597
2030	16,105	124,682

주: 수급자는 연간 기준이며, 총 급여액은 연간 합계임.

사. 급여 종류별 급여액 산출내역

급여 종류별 급여액은 <표 V-6>의 결과이며, 수급자 수와 월평균급여액은 월별 전망치를 연도 단위로 평균한 값이다.

<표 V-28> 노령연금 급여액 산출내역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연도	급여액	수급자	월평균급여액
2026	493,624	6,500	633
2027	556,059	6,949	667
2028	604,417	7,226	697
2029	657,074	7,527	727
2030	730,503	7,987	762

〈표 V-29〉 유족연금 급여액 산출내역

(단위: 억 원, 천 명, 천 원)

연도	급여액	수급자	월평균급여액
2026	46,236	1,114	346
2027	49,899	1,171	355
2028	53,969	1,231	365
2029	58,276	1,292	376
2030	62,825	1,354	387

〈표 V-30〉 장애연금 급여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천 명, 천 원)

연도	급여액	수급자	월평균급여액
2026	4,565	70	546
2027	4,897	72	565
2028	5,235	75	584
2029	5,556	77	600
2030	5,853	79	615

아. 기타 지출

기타 지출은 연금급여 지출 외에 기금관리운영, 공단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영비와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복지타운운영비 등의 경상지출로 구분된다. 2026년의 기타 지출은 약 8,6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최근 기타 지출의 증가율의 평균치인 약 2.7%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V-31〉 기타 지출 현황(2010~2025)

(단위: 백만 원)

연도	기타 지출					기타 지출 증가율
	계	관 리 운영비	지 급 수수료	연구비	복지타운 운 영 비	
2010	445,479	430,577	4,106	3,498	7,298	0.54%
2011	492,745	479,149	744	3,681	9,171	10.61%
2012	517,399	502,879	1,058	4,830	8,632	5.00%
2013	528,212	514,358	835	4,836	8,183	2.09%
2014	551,000	537,000	627	5,328	8,045	4.31%
2015	570,500	551,500	-	6,000	13,000	3.54%
2016	584,500	576,500	-	-		2.45%
2017	623,500	614,900	-	-		6.67%
2018	643,100	635,100	-	-		3.14%
2019	668,500	660,500	-	-		3.95%
2020	705,200	697,200	-	-		5.49%
2021	738,000	729,000	-	-		4.65%
2022	800,700	791,700	-	-		8.50%
2023	832,900	823,900	-	-		4.02%
2024	833,600	833,600	-	-		0.08%
2025	820,400	820,400	-	-		-1.58%

주: 연도 말 기준, 2016, 2017년 연구비 등은 관리운영비 내 포함되어 계산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V-32〉 기타 지출 전망

(단위: 억 원)

연도	계	기금운영비	경상지출
2026	8,650	5,752	2,898
2027	8,881	5,906	2,975
2028	9,118	6,063	3,055
2029	9,361	6,225	3,136
2030	9,613	6,393	3,220

VI. 기금운용현황 및 기금 전망

1. 기금운용현황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기금을 운용하여 얻어지는 기금투자수익 등이 있으며, 지출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표 VI-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수 입				지 출			신규 조성자금
	계	연금 보험료	기금투자 수익	기타	계	연금 급여	기타	
2010	554,295	252,857	301,058	380	90,812	86,359	4,453	463,483
2011	351,892	274,346	76,717	829	103,119	98,189	4,930	248,773
2012	551,681	301,277	249,916	488	120,682	115,508	5,174	430,999
2013	486,279	319,067	166,513	699	136,410	131,128	5,282	349,869
2014	571,987	340,775	230,326	886	143,303	137,799	5,504	428,684
2015	582,557	364,261	217,414	882	157,545	151,840	5,705	425,012
2016	636,277	390,359	245,439	479	176,527	170,682	5,845	459,750
2017	830,694	417,849	412,130	715	197,074	190,839	6,235	633,620
2018	385,347	443,735	-58,671	284	213,958	207,527	6,431	171,389
2019	1,213,056	478,001	734,247	809	234,329	227,643	6,685	978,727
2020	1,234,331	512,172	721,437	722	263,593	256,541	7,052	970,738
2021	1,448,668	535,402	912,052	1,214	298,751	291,368	7,383	1,149,917
2022	-234,328	559,140	-795,518	2,049	348,208	340,201	8,007	-582,536
2023	1,852,021	583,698	1,267,153	1,170	398,732	390,402	8,329	1,453,289
2024	2,215,951	617,392	1,597,115	1,443	445,384	437,048	8,336	1,770,567
2025	2,956,258	638,803	2,316,343	1,112	504,808	496,605	8,204	2,451,450

주: 각 연도 말 기준자료임. 2009년 이전의 현황은 〈부록표 4〉 참조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9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1988년도 제도 시행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12월 말까지 총수입 1,892.3조 원(연금보험료 등 923.0조 원, 기금투자수익 969.3조 원 등) 중 연금급여를 비롯하여 약 434.4조 원이 지출되어 2025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은 약 1,458.0조 원(시가 기준)이 조성되었다.

〈표 VI-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단위: 억 원)

연도	회수 자금	운용내역				적립기금			
		계	공공 부문	금융부문	기 타	계	공공 부문	금융부문	기 타
2010	525,829	825,337	0	825,337	0	3,239,908	0	3,235,975	3,933
2011	445,880	760,834	0	760,834	0	3,488,677	0	3,484,681	3,996
2012	462,397	798,111	0	798,111	0	3,919,677	0	3,915,683	3,994
2013	501,120	833,730	0	833,730	0	4,269,545	0	4,264,473	5,072
2014	541,211	887,329	0	887,329	0	4,698,229	0	4,692,534	5,695
2015	637,140	989,850	0	989,850	0	5,123,241	0	5,116,983	6,258
2016	624,450	984,640	0	984,640	0	5,582,991	0	5,576,819	6,176
2017	495,020	882,250	0	882,250	0	6,216,611	0	6,210,372	6,239
2018	732,520	1,135,750	0	1,135,750	0	6,387,811	0	6,382,168	5,643
2019	791,560	1,219,060	0	1,219,060	0	7,366,538	0	7,360,790	5,748
2020	649,713	1,055,060	0	1,055,060	0	8,337,276	0	8,331,384	5,892
2021	640,380	1,037,660	0	1,037,660	0	9,487,194	0	9,481,060	6,133
2022	876,570	1,403,560	0	1,403,560	0	8,904,657	0	8,898,353	6,303
2023	1,023,210	1,023,210	0	1,023,210	0	10,357,946	0	10,351,976	5,970
2024	1,119,130	1,119,130	0	1,119,130	0	12,128,510	0	12,122,570	5,940
2025	1,315,056	1,315,056	0	1,315,056	0	14,579,963	0	14,574,885	5,077

- 주: 1) 2004년부터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 등의 운용을 복지부문을 포함한 기타운용으로 분류
 2) 각 연도 말 기준자료(시가 기준)임. 현금주의로 작성, 2020년 운용내역 및 회수자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계획상 자료임.
 3) 2009년 이전의 현황자료는 〈부록표 4〉 참조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총 1,458.0조 원(시가 기준)의 적립기금은 공단회관취득비 등의 기타투자를 제외하고 모두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1994년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운용자금의 50% 이상이 공공부문에 투자되어 온 것에 비하여 1999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추가 투자가 폐지되고 기존의 투자는 회수되어 모두 금융부문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표 Ⅵ-3〉 연도별 수익률 현황

(단위: %)

연도	총계	공공 부문	복지 부문 등	금융부문				
				계	채권	주식	대체 투자	단기 자금
2010	10.4	-	-0.3	10.4	7.6	21.9	8.7	2.3
2011	2.3	-	-0.6	2.3	5.7	-9.5	10.2	3.2
2012	7.0	-	-1.0	7.0	6.2	10.1	4.9	3.2
2013	4.2	-	0.1	4.2	2.0	8.5	6.4	2.6
2014	5.2	-	-1.7	5.3	7.0	-0.1	12.3	1.5
2015	4.6	-	-2.1	4.6	4.2	3.0	12.2	1.6
2016	4.8	-	-1.4	4.8	2.0	7.8	9.9	2.0
2017	7.3	-	-1.7	7.3	0.5	18.7	4.6	0.4
2018	-0.9	-	-1.5	-0.9	4.8	-11.9	11.8	2.4
2019	11.3	-	-1.1	11.3	4.3	21.9	9.6	1.5
2020	9.7	-	-2.9	9.7	1.4	21.4	2.4	-0.1
2021	10.8	-	-2.9	10.8	-0.2	19.2	23.8	1.1
2022	-8.22	-	-0.3	-8.2	-5.5	-16.3	8.9	-0.9
2023	13.59	-	0.94	13.61	7.65	23.3	5.8	4.23
2024	15.00	-	1.06	15.02	7.50	21.48	17.09	6.43
2025	18.82	-	3.69	18.84	0.84* (3.77)	82.44* (19.74)	8.03	1.96

주: 1) 각 연도 말 기준자료로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이며, 연 환산 수익률임

2) 2009년 이전의 현황자료는 〈부록표 6〉 참조

*) 국내 자산 기준 수익률이며, 괄호 안은 해외자산 기준 수익률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표 VI-3〉의 수익률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 기대감 등이 반영된 국내주식 상승효과와 기술주 중심의 해외주식 상승으로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 상승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의 효과가 반영되었고, 해외 기술주 중심의 상승으로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도에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적립기금 천 조원을 돌파하였다. 2022년도에는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도에는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개선된 데에 따라 주식 상승률이 크게 상승하였고,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경기개선과 글로벌 증시의 강세로 가치가 급등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2020년도는 2019년부터 이어진 COVID-19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행을 통한 경기부양의 결과, 전년도보다는 다소 수익률이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증시의 강세로 인하여 9.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도는 11.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 금리 인하와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전 연도인 2018년도는 연초부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 분쟁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신흥국의 신용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고조되어 기금투자 수익률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주식을 제외한 채권 및 대체투자부문 등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4〉 2025년도 투자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투자액 누계(2024년 12월 말)		투자액 누계(2025년 12월 말)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계	1,212,851	100.0	1,457,996	100.0
공공부문	0	0.00	0	0.00
복지부문	205	0.02	216	0.01
금융부문	1,212,257	99.95	1,457,489	99.97
- 채권	432,583		406,066	
- 주식	570,719		814,222	
- 대체투자	206,884		232,576	
- 단기자금	3,474		4,442	
기타부문	390	0.03	292	0.02

주: 투자내역은 시가 기준으로 2024년 12월 말 및 2025년 12월 말 기준자료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VI-4〉의 2025년도 12월 말 기준 누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적립 금액 1,458.0조 원 중 99.97%인 약 1,457.5조 원이 금융부문에 투자되었고 복지부문의 투자는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한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는 더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하지 않아 금융부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부문 내에서는 약 56% 정도가 주식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채권투자에 대한 비중은 약 28%로서 약 406조 정도가 투자되고 있으며 채권보다는 주식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1994년 이전에 투자되었던 재정자금은 전액 회수되어 공공부문에 투자된 잔액은 없으며, 대부분의 운용자금이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금 전망

2026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공공부문의 투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기존의 생활안정자금이나 복지시설을 위한 대부사업에 투자되었던 복지부문의 투자 또한 신규 사업의 시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여유자금은 모두 금융부문에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금융부문의 투자는 국공채, 지방채, 기타채권 및 위탁투자 등에 일정한 비중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26년 이후에는 부문별 투자에서 위탁 및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국공채의 투자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상품별 투자기간(duration)의 경우, 2026년도의 대부분의 투자가 만기 1년 이상 상품에 투자되었고, 그 비율은 국공채의 경우 2026년을 기준으로 1년 만기(15.54%), 2년 만기(15.43%), 3년 만기(9.73%), 5년 만기(13.02%), 5년 이상 만기(46.28%)로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을 위한 상품별 투자기간에 대한 가정 또한 연도별 금융부문의 투자기간별 투자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VI-5〉 기금투자계획

(단위: 억 원, %)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금융부문 계	1,401,033	100.0	1,433,315	100.0	1,427,465	100.0	1,508,594	100.0	1,545,967	100.0
- 국공채	178,351		152,218		151,026		158,101		161,244	
- 지방채, 기타채권	185,357		169,848		168,583		177,109		180,878	
- 위탁	498,628		531,186		525,164		555,012		565,360	
- 대체투자 등	538,697		580,063		582,692		618,372		638,485	

자료: 저자 작성

각 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여유원금 회수와 투자수익이 발생하는데, 2026년도 여유원금 회수 총액은 약 64조 원, 투자수익총액은 약 64조 원 규모이다. 투자수익 및 여유원금 회수는 〈표 VI-6〉과 같이 2025년 12월

말까지 누적된 적립자금 중에서 주식부문에 투자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투자된 부분과 2026년 1월 이후의 운용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여유원금 회수의 경우 A 부분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적립기금에 대한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이고, B 부분은 2026년 1월 이후에 운용된 자기에 대한 여유원금 회수이다. A와 B 부분을 더한 것이 당년도 전체 여유원금 회수금액이 된다. 투자수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12월 말 적립기금에 대한 투자수익(C) 부분과 2026년 1월 이후의 운용 자기에 대한 투자수익(D)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6년 1월 이후의 운용 자기에 대한 투자수익은 부문별 투자비율과 이자율⁴⁸⁾에 대한 중기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VI-6〉 연도별 여유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내역

(단위: 억 원)

연도	여유원금 회수			투자수익		
	A	B	(A+B)	C	D	(C+D)
2026	640,490	0	640,490	133,576	509,159	642,735
2027	575,002	56,980	631,982	116,505	586,381	702,886
2028	438,128	115,189	553,317	108,509	661,576	770,085
2029	401,775	153,540	555,315	116,674	729,703	846,377
2030	387,135	149,564	536,699	112,059	807,529	919,588

- 주: 1) A와 C는 2025년 12월 말까지 적립된 기금(주식투자부문 제외)으로부터 회수되는 투자수익과 원금이며, B와 D는 기 적립된 기금 중 주식부문에 대한 운용자금과 2026년 1월 이후 운용자금에 대한 투자수익과 원금임
 2) 기 적립기금에 대한 회수자금과 투자수익 중 현금흐름이 확정되지 않은 운용자금에 대한 투자수익 및 회수예정이 미정인 영구채 등은 제외되었음
 3) 2025년 12월 말까지 적립된 기금으로부터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현금주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주식부문에 대한 평가차익은 제외(2026년 1월 이후 포함)되었음.

48) 중기 재정전망을 위한 예정이자율은 자산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국공채 및 지방채의 경우 약 2.8%,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약 5.0%, 위탁 투자의 경우에는 5.7~5.8%를 적용하고 있음.

여유원금 회수와 투자수익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수익의 경우 채권에 대한 투자수익과 기타 위탁 및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투자수익은 국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와 같은 기타채권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기타 투자수익은 위탁투자로 발생하는 수익(평가 수익 포함) 및 대체투자 등에 대한 투자수익을 말한다. 2026년의 경우 채권 투자수익은 약 8조 5천억 원, 위탁투자 투자수익은 29조 2천억 원, 대체 투자 등에 대한 투자수익은 26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표 VI-7〉 부문별 투자수익 세부내역

(단위: 억 원)

연도	투자수익				
	합계	국공채	지방채 및 기타채권	위탁	대체투자 등
2026	642,735	48,809	36,271	291,924	265,731
2027	702,886	50,914	32,865	320,429	298,678
2028	770,085	50,601	29,703	356,838	332,943
2029	846,376	51,256	29,069	400,053	365,998
2030	919,588	49,856	28,701	440,599	400,432

주: 1) 기타채권의 세부항목은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여신금융채임.

2) 위탁투자는 국내위탁과 해외위탁을 합하여 산출함.

3) 대체투자 등에는 대체투자뿐만 아니라 수익증권 및 주식투자가 포함됨.

여유원금 회수의 경우에도 투자수익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채권, 위탁운용 및 대체투자 등에 대한 회수로 구분된다. 2026년의 경우 여유원금 회수 총액 64조 원은 채권부문에서 약 53조 원이 회수됨으로써 회수자금의 대부분이 채권부문에서 발생될 전망이다. 위탁투자로부터 약 10조 2천억 원, 대체투자 등으로부터 약 6천억 원이 회수될 전망이다. 채권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공채부문에서 약 9조 6천억 원, 지방채 및 기타채권에서 약 43조 6천억 원이 회수될 전망이다. 한편, 작성된 투자수익 및 여유원금 회수 총액은 해당 수입을 현금이 수취되는 기간에 기록하지 않고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현금의 유출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Ⅵ-8〉 부문별 여유원금 회수 세부내역

(단위: 억 원)

연도	여유원금 회수				
	합계	국공채	지방채 및 기타채권	위탁	대체투자 등
2026	640,490	96,134	435,792	102,387	6,177
2027	631,982	175,900	343,387	102,078	10,617
2028	553,317	178,168	283,439	77,971	13,739
2029	555,315	179,033	217,564	153,495	5,223
2030	536,699	181,411	159,861	193,008	2,419

- 주: 1) 기타채권의 세부항목은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여신금융채임.
 2) 위탁투자는 국내위탁과 해외위탁을 합하여 산출함.
 3) 대체투자 등에는 대체투자뿐만 아니라 수익증권 및 주식투자가 포함됨.

국민연금 기금은 2025년 12월 말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1,458조 원이 적립되어 있다. 2026년도에는 약 69조 원의 연금보험료와 64조 원의 투자 수익으로 총 133조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약 57조 원으로서 연금급여로 약 56조 원, 그 밖에 행정관리비로 약 9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신규조성자금이 약 7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2025년도 말 기준 적립 기금에 추가되어 2026년도 말 기준 적립기금은 약 1,5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도에는 144조 원의 수입과 64조 원의 지출로 인하여 신규조성자금이 약 80조 원에 달하며 2027년도 말에 적립기금은 1,6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표 VI-9〉 국민연금 재정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입 (A)	계	1,328,946	1,437,390	1,563,678	1,700,642	1,835,510
	연금보험료	686,211	734,504	793,593	854,265	915,922
	투자수익	642,735	702,886	770,085	846,377	919,588
지출 (B)	계	568,403	636,056	689,531	747,364	826,242
	연금급여	559,753	627,175	680,413	738,003	816,629
	기타	8,650	8,881	9,118	9,361	9,613
신규조성자금 (C=A-B)		760,543	801,334	874,147	953,278	1,009,268
여유원금 회수(D)		640,490	631,982	553,317	555,315	536,699
운용자금(E=C+D)		1,401,033	1,433,316	1,427,464	1,508,593	1,545,967
적립기금		15,340,506	16,141,839	17,015,987	17,969,265	18,978,534

주: 기타 지출에는 관리운영비 및 경상지출 등이 포함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5.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년~2072년』, 2023.12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연도.
- 손현섭 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 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 2024-01, 2024.04.
- 손현섭 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5~2029)』, 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 2025-01, 2025.04.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제43권 제1호,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6.
- 한국금융연구원, 『2026년 경제전망』, 2025-02 경제전망시리즈,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2026.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서울: 한국은행, 2026.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ecos.bok.or.kr)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6, Global Economy: Steady amid Divergent Forces』, Washington D.C., 2026.
-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Testing Resilience』, OECD Publishing, Paris, 2026.
-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6』, A World Bank Group Flagship Report, Washington D.C., 2026.

부 록

1. 주요 기관별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부록표 1〉 타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결과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한국은행 (26.02)	1.0	2.0	1.8	-	-	-
KDI (26.02)		1.9	-	-	-	-
OECD (26.01)		2.2	2.0	-	-	-
IMF (26.01)		1.9	2.1	-	-	-
World Bank (26.01)		2.1	2.0	-	-	-

〈부록표 2〉 타기관 물가상승률 전망 결과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한국은행 (26.02)	2.1	2.2	2.0	-	-	-
KDI (26.02)		2.1	-	-	-	-
OECD (26.01)		2.2	2.0	-	-	-
IMF (26.01)		2.5	2.2	-	-	-
World Bank (26.01)		2.1	2.0	-	-	-

〈부록표 3〉 타기관 이자율(국고채 3년물) 전망 결과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금융연구원(25.12)	2.5	2.4	-	-	-	-

2. 기금현황

〈부록표 4〉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수 입				지 출			신규 조성자금
	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	기타	계	연금급여	기타	
1988	5,278	5,069	201	8	3	3	0	5,279
1989	7,121	6,279	799	43	57	57	0	7,053
1990	10,193	8,340	1,849	4	426	426	0	9,655
1991	12,796	9,848	2,943	5	1,109	1,109	0	11,289
1992	16,628	12,234	4,394	0	2,295	2,165	130	14,229
1993	32,228	26,394	5,834	0	3,474	3,331	143	28,614
1994	43,415	33,258	10,157	0	5,344	5,191	153	37,439
1995	53,935	39,663	14,272	0	7,715	7,555	160	45,997
1996	68,688	49,436	19,252	0	11,353	11,176	177	57,155
1997	81,621	56,757	24,843	21	15,213	14,998	215	66,115
1998	116,613	78,407	38,206	0	24,506	24,255	251	91,823
1999	135,096	93,859	41,222	15	39,723	38,906	817	95,276
2000	153,010	103,589	49,392	29	16,708	15,884	824	136,229
2001	167,111	120,690	46,398	23	16,718	15,693	1,025	150,258
2002	191,819	138,180	53,614	25	20,359	19,153	1,206	171,336
2003	228,171	156,109	72,062	0	24,573	23,284	1,289	203,598
2004	275,612	171,433	102,989	1,190	32,406	29,140	3,266	243,206
2005	269,074	185,436	82,378	1,260	39,600	35,849	3,751	229,474
2006	304,216	201,523	101,043	1,650	47,570	43,602	3,968	256,646
2007	355,262	216,702	137,190	1,370	55,936	51,826	4,110	299,326
2008	225,853	229,855	-4,191	189	66,978	61,808	5,170	158,875
2009	500,844	238,582	262,462	-200	78,719	74,719	4,000	422,125

주: 각 연도 말 기준자료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부록표 5〉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단위: 억 원)

연도	회수 자금	운용내역				적립기금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 타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 타
1988	0	5,279	2,880	2,399	0	5,279	2,880	2,399	0
1989	1,852	8,906	3,400	5,506	0	12,342	6,278	6,055	9
1990	4,085	13,740	3,900	9,840	0	22,109	10,178	11,809	122
1991	4,810	16,099	5,000	9,899	1,200	33,795	15,178	16,897	1,720
1992	1,573	15,802	6,100	8,502	1,200	48,128	21,278	23,825	3,025
1993	9,841	38,455	12,400	24,555	1,500	76,881	30,800	41,418	4,663
1994	12,847	50,286	38,120	11,234	932	114,952	65,520	43,209	6,223
1995	10,407	56,404	42,735	12,155	1,514	161,173	104,355	48,897	7,921
1996	26,436	83,592	47,397	34,265	1,929	218,507	146,752	63,012	8,743
1997	21,475	87,590	50,000	35,015	2,575	284,916	190,652	84,120	10,144
1998	46,730	138,552	89,699	39,941	8,912	377,023	267,951	92,311	16,761
1999	85,640	180,916	88,742	91,628	545	472,396	318,573	141,450	12,373
2000	150,299	286,528	86,424	199,650	455	615,876	348,608	257,501	9,767
2001	161,068	311,327	30,822	280,471	35	780,565	295,055	476,904	8,606
2002	106,702	278,038	49,390	228,574	75	963,396	303,551	650,491	9,354
2003	219,362	414,311	0	414,221	90	1,166,945	152,740	1,007,976	6,229
2004	363,930	574,003	0	570,455	3,548	1,410,080	63,840	1,340,415	5,825
2005	373,572	603,632	0	603,495	137	1,639,486	0	1,633,509	5,977
2006	407,526	684,020	0	684,020	0	1,896,065	0	1,890,597	5,468
2007	451,267	728,463	0	728,463	0	2,195,399	0	2,190,099	5,300
2008	675,531	947,980	0	947,980	0	2,354,325	0	2,350,015	4,310
2009	374,830	494,613	0	494,613	0	2,776,424	0	2,772,519	3,905

주: 2004년부터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 등의 운용을 복지부문을 포함한 기타운용으로 분류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104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부록표 6〉 연도별 수익률 현황

(단위: %)

연도	총계	공공부문	복지부문 등	금융부문				
				계	채권	주식	대체투자	단기자금
1988	12.0	11.0	-	13.0	13.1	-	-	12.5
1989	12.8	11.0	-	14.4	14.6	-	-	13.1
1990	12.6	11.0	-	13.8	14.0	10.0	-	14.3
1991	12.8	11.0	11.0	14.0	14.5	10.0	-	14.3
1992	12.7	11.0	11.0	14.1	14.7	9.9	-	13.4
1993	12.0	9.7	11.0	13.9	13.9	14.3	-	11.3
1994	12.1	10.3	10.9	14.0	13.8	16.0	-	12.4
1995	11.8	11.6	10.7	12.2	13.8	5.1	-	13.7
1996	10.6	10.3	9.7	11.2	13.5	2.9	-	12.1
1997	8.8	10.3	8.7	5.6	13.2	-24.9	-	12.3
1998	14.4	13.0	8.9	18.4	15.0	39.5	-	13.0
1999	12.8	8.5	8.0	24.5	13.0	88.9	-	5.9
2000	5.9	8.6	8.1	1.3	15.3	-50.9	-	6.2
2001	9.0	6.6	6.0	11.4	8.8	36.6	-	4.8
2002	7.7	6.5	4.5	8.4	9.8	-2.3	-	4.0
2003	7.0	4.9	4.5	7.6	5.1	37.1	-	3.9
2004	8.3	4.7	3.9	8.6	8.6	9.9	0.8	3.7
2005	5.6	4.2	3.6	5.7	0.3	57.6	8.5	3.5
2006	5.8	-	3.6	5.8	5.8	5.5	6.6	4.2
2007	6.8	-	1.5	6.9	2.7	33.7	6.1	4.8
2008	-0.2	-	-0.8	-0.2	10.5	-42.9	2.7	5.9
2009	10.4	-	0.5	10.4	4.0	45.4	-0.9	-0.5

주: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로, 연도 말 기준자료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3. 중기재정전망(2024~2028)과 2025년 실적 비교

202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기전망은 2024년 1분기에 발간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의 결과이며, 전망치와 2025년 급여지출 실적의 차이에 대한 비교는 2025년 결산 시 참고자료가 된다. <부록표 7>에 의하면, 실적이 전망보다 높으며 약 2조 3천억 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오차는 총 급여액 대비 약 4.4% 규모이며, 급여종류별로 과대 또는 과소로 오차를 서로 상쇄하므로, 급여별 오차는 총 급여액 오차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방법론에 따르면 급여액 산출은 수급자 수와 1인당 평균급여액을 곱하는 방식인데, 구분 단위(연도별·월별·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합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급자 수의 과대(또는 과소), 1인당 평균급여액의 과대(또는 과소)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생하면 오차는 상쇄되어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록표 7> 급여액 비교

(단위: 억 원, %)

구분		실적(A)	전망(B)	차이(A-B)	비율(A/B)
총 계		496,605	519,564	-22,959	95.6
연금	소계	482,228	505,064	-22,836	95.5
	노령	437,753	457,747	-19,994	95.6
	장애	5,024	5,389	-365	93.2
	유족	39,452	41,928	-2,476	94.1
일시금	소계	14,377	14,500	-123	99.2
	반환	13,254	13,533	-279	97.9
	사망	1,123	967	156	116.1

주: 급여액은 연간 총액 기준임. 장애일시금은 장애연금과 합산함.

노령연금은 급여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오차 규모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수급자 수의 오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급여액의 오차는 평균급여액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표 8〉 수급자 수 비교

(단위: 명, %)

구 분		실적(A)	전망(B)	차이(A-B)	비율(A/B)
총 계		7,902,646	7,927,714	-25,068	99.7
연금	소계	7,682,622	7,699,930	-17,308	99.8
	노령	6,486,471	6,549,726	-63,255	99.0
	장애	75,787	81,618	-5,831	92.9
	유족	1,120,364	1,068,586	51,778	104.8
일시금	소계	220,024	227,784	-7,760	96.6
	장애	2,531	3,396	-865	74.5
	반환	199,383	205,922	-6,539	96.8
	사망	18,110	18,466	-356	98.1

주: 수급자는 연간 누계 기준임.

〈부록표 9〉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실적(A)	전망(B)	차이(A-B)
계	517,025	636,222	-65,197
특례노령	215	0	215
조기노령	90,684	114,697	-24,013
노령(20년 미만)	260,395	273,136	-12,741
노령(20년 이상)	200,933	248,389	-47,456
분할연금	18,798	0	18,798

주: 특례노령연금은 청구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규모가 미미하여 모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분할연금은 1건의 연금을 분할한 것이므로 전망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1건의 연금으로 처리함.

4. 시나리오별 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따른 민감도 분석

가. 시나리오 1 - AI 슈퍼사이클

〈부록표 10〉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 - 시나리오1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경제성장률	1.0	1.9	2.1	1.8	1.7	1.8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2	2.5	2.5	2.4	2.4
임금상승률(전산업)	3.1	3.7	4.4	4.1	3.6	3.8
회사채유통수익률	3.7	3.5	3.7	3.9	4.0	4.1

주: 2025년은 실적치, 2026년 이후부터 전망치

- 시나리오 1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수출 슈퍼사이클’ 상황을 가정
- 메모리 반도체 단가 급등이 견인했던 2017-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의 거시 데이터를 참조하여 설정
 - 거시 모형의 수출 증가율에 +3.0%p, 교역조건 변화율에 +1.0%p의 양(+)의 충격을 부여
 - 2027년 GDP 증가율은 베이스라인을 상회하는 2.1%로 단기 정점을 형성하며, 2030년에도 1.8%를 기록해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정 부분 방어
 - 물가상승률은 기준 전망보다 상향 전망
 - 임금상승률 또한 기준 전망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
 -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 전환으로 회사채유통수익률(AA-)은 2027년 4.4%까지 상승하는 모습

108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부록표 11〉 국민연금 재정전망 - 시나리오1

(단위: 억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입 (A)	계	1,328,995	1,437,644	1,564,515	1,702,871	1,839,705
	연금보험료	686,211	734,591	794,182	856,194	919,306
	투자수익	642,784	703,053	770,333	846,677	920,399
지출 (B)	계	568,403	636,526	690,736	749,530	829,415
	연금급여	559,753	627,644	681,618	740,169	819,805
	기타	8,650	8,882	9,118	9,361	9,610
신규조성자금 (C=A-B)		760,592	801,118	873,779	953,341	1,010,290
여유원금 회수(D)		640,490	631,984	553,312	555,295	536,679
운용자금(E=C+D)		1,401,082	1,433,102	1,427,091	1,508,636	1,546,969
적립기금		15,340,555	16,141,672	17,015,451	17,968,792	18,979,081

나. 시나리오 2 - 지정학적 위기

〈부록표 12〉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 - 시나리오2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경제성장률	1.0	1.5	1.7	1.3	1.5	1.5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3	2.6	2.6	2.6	2.6
임금상승률(전산업)	3.1	3.7	4.2	3.8	3.6	3.7
회사채유통수익률	3.7	3.8	4.0	4.4	4.5	4.2

주: 2025년은 실적치, 2026년 이후부터 전망치

○ 시나리오 2는 중동 내 무력 충돌,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여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붕괴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극도로 치솟는 지정학적 위기 경로 상정

-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1990년 걸프전 당시 에너지 전량 수입국인 한국

경제가 겪었던 거시경제 충격을 기반

- 수출액 증가율에 -2.0%p, 교역조건 변화율에 -3.0%p의 강력한 음(-)의 충격을 가하고, 대외 불안 심리를 반영하여 기간 스프레드에 +0.4%p의 양(+)의 충격을 부여
- 글로벌 공급 충격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양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
- 경제성장률은 2026년 1.5%, 2027년 1.7%까지 성장에서 전환되어 2028년 1.3%까지 추락하며 극심한 실물 침체
-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전망기간 내내 2.6%의 높은 수준에 고착화

〈부록표 13〉 국민연금 재정전망 - 시나리오2

(단위: 억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입 (A)	계	1,329,143	1,438,158	1,565,521	1,703,016	1,837,273
	연금보험료	686,211	734,591	793,840	854,691	916,685
	투자수익	642,932	703,567	771,681	848,325	920,588
지출 (B)	계	568,403	637,113	691,997	751,509	832,932
	연금급여	559,753	628,230	682,879	742,148	823,320
	기타	8,650	8,883	9,118	9,361	9,612
신규조성자금 (C=A-B)		760,740	801,045	873,524	951,507	1,004,341
여유원금 회수(D)		640,490	631,990	553,317	555,289	536,605
운용자금(E=C+D)		1,401,230	1,433,035	1,426,841	1,506,796	1,540,946
적립기금		15,340,703	16,141,748	17,015,272	17,966,779	18,971,121

다. 시나리오 3 - 금리인상

〈부록표 14〉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 - 시나리오3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경제성장률	1.0	1.8	1.9	1.5	1.4	1.4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1	2.3	2.3	2.2	2.2
임금상승률(전산업)**	3.1	3.7	4.1	3.6	3.4	3.4
회사채유통수익률*	3.7	3.7	3.8	4.0	4.1	4.1

주: 2025년은 실적치, 2026년 이후부터 전망치

- 시나리오 3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및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인해 연방 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장기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 상정
- 대외 요인에 의한 강제적 긴축 여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이자율 방정식의 외생적 충격항에 +0.25%p의 상방 충격을 지속적으로 부여
 - GDP 증가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와 동일한 흐름을 유지하여, 완만한 실물 충격 흡수력을 보임
 - 물가상승률은 전망기간 내내 베이스라인을 0.1~0.2%p가량 밀돌며 2029~2030년 2.2%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통화긴축 장기화는 단기적인 실물 충격은 크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채권 시장의 수익률 곡선 동학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연장시키는 요인

〈부록표 15〉 국민연금 재정전망 - 시나리오3

(단위: 억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입 (A)	계	1,329,094	1,437,743	1,564,024	1,700,558	1,834,838
	연금보험료	686,211	734,504	793,354	853,408	914,273
	투자수익	642,883	703,239	770,670	847,150	920,565
지출 (B)	계	568,403	636,056	688,952	746,268	824,376
	연금급여	559,753	627,175	679,834	736,905	814,765
	기타	8,650	8,881	9,118	9,363	9,611
신규조성자금 (C=A-B)		760,691	801,687	875,072	954,290	1,010,462
여유원금 회수(D)		640,490	631,988	553,337	555,366	536,783
운용자금(E=C+D)		1,401,181	1,433,675	1,428,409	1,509,656	1,547,245
적립기금		15,340,653	16,142,340	17,017,413	17,971,703	18,982,165

저자 약력

- 주 재 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이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 준 홍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손 현 섭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이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 승 희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이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박 성 민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국민연금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윤 이 상

서울시립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학 석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과장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보고서와
다양한 연구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nstitute.nps.or.kr>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2026-03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

2026년 6월 인쇄

2026년 6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한 정 립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 063-713-6776 / FAX : 063-900-3250

ISBN 978-89-6338-808-3 (93320)